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헝가리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헝가리 공화국(Republic of Hungary, 현지어 Magyarország)
면적	93,030 km ² (자료원 : 헝가리통계청(KSH), 2021. 12. 기준)
수도	부다페스트(Budapest)
민족(인종)	
언어	헝가리어(전체 인구의 약 98.9%가 사용)
종교	가톨릭 38.9%, 개신교 13.8%, 그리스 정교 0.1% 등
기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대륙성 및 대서양 기후 혼재, 일부 남부는 지중해성 기후○ 기온: 연평균 10.8℃, 여름평균 18~22℃, 겨울 평균 0~4℃○ 강수량: 연평균 500~900mm 정도
국가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커탈린 노바크(Katalin Novk. 2022년 5월 취임)○ 총리: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n. 2022년 5월 재취임 / 5선)○ 국회의장: 라슬로 쿠티비르(Lszl Kvér. 2022년 5월 재취임)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89-02-01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한-헝가리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협정	1988-08-01	한-헝가리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협정	
체육협력에 관한 의정서	1988-10-01	체육협력에 관한 의정서	
투자보장협정	1988-12-01	투자보장협정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1989-02-01	무역 및 경제협력협정	2004. 5. 1. 헝가리의 EU 가입에 따라 종료
문화협정	1989-02-01	문화협정	
외교관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1989-02-01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	1991-01-01	일반여권 사증면제 협정의 관계조항으로 흡수	
이중과세방지협정	1989-03-01	이중과세방지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1989-03-01	과학기술협력협정	
항공협정	1989-11-01	항공협정	
사증면제협정	1991-03-01	사증면제협정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협정	1995-12-01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 협정	
경제협력 협정	2005-04-01	헝가리의 EU 가입 계기 새로운 경제 협정 체결	
사회보장협정	2006-05-01	사회보장협정	
한-EU FTA발효	2011-07-01	한-EU FTA발효	
워킹홀리데이 협정	2013-04-01	워킹홀리데이 협정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정	2013-10-01	원자력 평화적 이용 협정	
한-헝가리 개정 항공운송협정	2014-11-01	한-헝가리 개정 항공운송협정	

한-헝가리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2014-11-01	한-헝가리 운전면허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한-헝가리 군사비밀보호협정	2015-12-03	한-헝가리 군사비밀보호 협정	

한국교민 수

4,544 명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2022.9.))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헝가리는 1989년 유럽 동구권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한 이후 우리 대외정책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지속 표명해왔다.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의 헝가리 국빈 방문 이후 양국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또한, 2022년까지 4차례에 걸쳐 개최된 한-헝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산업, 과학, 기술, 문화 등 다양한 측면의 협력을 논의하고 이를 실천해오고 있다.

-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헝가리는 유럽연합(EU)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동방 정책(Opening to the East)' 기조 하에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 2014년 1월, 헝가리에서 제1차 한-헝 경제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 2015년 12월, 우리나라와 비셰그라드 그룹* 정상회의가 개최돼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비셰그라드 그룹(Visegrad Group, V4) :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4개국으로 구성된 중동부 유럽 협력체

- 2016년 2월, 한국에서 제2차 한-헝 경제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헝가리 측의 요청으로 아시아나 항공이 7~8월에 인천-부다페스트 직항편을 임시로 운항했다. 삼성메디슨은 중동부 유럽 연수센터를 헝가리 세멜바이스 의대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12월, 페테르 씨야르트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 2017년 12월, 헝가리에서 한-V4 정무차관보 회의가 개최돼 한-V4 협력 방안, 평창 동계올림픽, 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및 중동 문제 등을 논의했다. 같은 해, 제14차 한-헝 정책협의회가 개최돼 고위인사 교류, 2019년 수교 30주년 행사 준비, 북핵 문제,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또한, 한국 기업 약 70개사가 헝가리에 진출해 일자리 약 2만 3,000개를 창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2019년, 제3차 한-헝 경제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소재부품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의 협력과, 교역·투자, 과학기술·ICT, 산업기술, 보건 의료, 건설 인프라,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헝가리 측은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부다페스트 지하철 개선 프로젝트, 대형 스포츠 시설 건립 프로젝트 등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주시기를 요청했다.

- 2020년 6월, 한-V4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관련 상호 협조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국 외교 차관보는 국경이 봉쇄되는 상황 속에서 기업인의 예외적인 입국을 허용해준 데 대해 헝가리 측에 감사를 표했다.

- 2021년 5월, 헝가리에서 유람선 침몰사고 2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같은 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으로 헝가리를 방문해 V4 정상들과 회동했다.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유망산업, 과학기술, 에너지, 인프라, 문화,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울러, 한-헝 양국의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 2022년 3월, 제4차 한-헝 경제공동위원회가 화상으로 개최됐다. 동 위원회를 통해 양측은 포스트 코로나, 기후변화, 공급망 구축, 그린·디지털 전환 등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가기로 합의했다.

경제

한-헝 양국의 정식 수교가 이루어지기 이전, 1987년에 KOTRA 무역관이 헝가리에 개설돼 양국 경제교류의 물꼬를 텄다. 1989년 2월, 헝가리는 유럽 내 동구권 국가 중 최초로 우리나라와 국교를 수립해 경제 교류가 확대됐다.

1989년 삼성전자의 진출을 시작으로, 한국타이어, LG전자 등 우리 기업이 헝가리에 법인을 설립했다. 2016년 삼성 SDI, 2017년 SKon이 헝가리에 진출하며, 전기차 배터리 소재부품 제조업체가 대규모 진출이 이어졌다. 100개사 미만이었던 헝가리 진출기업 수는 2022년 9월 기준 290여개사로 증가했으며 누적 투자규모는 40억 유로를 초과한다. 헝가리투자청(HIPA)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과 2021년에 헝가리 최대 투자국가로 선정됐다.

2011년 한-EU FTA 발효와 함께 무역교류는 더욱 확대되었으나, 헝가리 기업이나 개인의 한국제품 수요는 크지 않은 편이다. 실제로 헝가리로 수출되는 물량의 약 70%는 한국 진출기업의 설비인 것으로 파악된다.

문화

헝가리는 고추(파프리카)를 즐겨먹는 식생활, 일자 표기방법(연-월-일 순), 이름 표기방법(성-이름 순) 등 문화적 유사성이 많은 국가다.

헝가리에서 우리 문화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드라마 '대장금'이 국영방송사 MTV에서 방영되면서부터다. 당시 평균 시청률 24%, 최고 시청률 34.2%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고, 이어서 '선덕여왕', '동이', '이산', '기황후' 등이 헝가리 전파를 탔다.

2008년 헝가리 엘떼(ELTE) 대학교에 한국학과 학사과정이 개설됐다. 이후 2013년에 석사, 2018년에 박사과정이 개설돼 총 120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한국학과가 소속된 동아시아학부는 입학 성적이 높은 편이다.

2013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헝가리 교육부로부터 공인 언학 자격시험으로 인증받았다. 2021년에는 한국문화원과 엘떼 대학교가 공동으로 세종학당을 개소해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다.

2019년, 주헝가리 한국문화원(2012년 개소)은 한-헝 국교 수립 30주년을 맞아 증축 이전했다. 이로써, 주헝가리 한국문화원은 유럽 내 최대 규모가 되었다. 헝가리가 인구 1천만명이 되지 않는 국가임을 감안했을 때 파격적인 행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문화원에서는 헝가리인을 대상으로 한국무용, 서예, 바둑, 가야금, K-pop 등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영화제 및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2022년 5월, 주헝가리 대한민국 대사관과 한국문화원은 제1회 한국의날 행사를 개최했다. 총 1만여 명의 참가자는 한국무용과 태권도 공연을 관람하고 한국음식, 전통놀이 등을 체험했다. 또한, 삼성전자, LG전자, 한국타이어, 삼성SDI, SKon, 엔켐 등 우리 진출기업이 부스를 운영하며 우리 산업의 우수성을 알렸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	5.4	4.6	-4.7	7.1	
명목GDP (십억\$)	160.59	163.52	155.81	184.58	
1인당 GDP (PPP, \$)	32,253.94	34,343.64	33,144.14	37,128.21	
1인당 명목 GDP (\$)	16,423.28	16,731.47	15,948.41	18,968.39	
정부부채 (% of GDP)	69.1	65.3	81.2	78.1	
물가상승률 (%)	2.85	3.34	3.33	5.1	
실업률 (%)	3.6	3.3	4.1	4.1	
수출액 (백만\$)	127,129	134,023	125,879	138,790	
수입액 (백만\$)	119,827	129,661	124,531	135,338	
무역수지 (백만\$)	7,302	4,362	1,348	3,452	-
외환 보유고 (백만\$)	30,117.58	30,337.23	30,657.17	33,883.98	
이자율 (%)	0.9	0.9	0.6	2.4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270.21	290.66	297.36	325.71	

<자료원 : IMF, MNB, OECD>

나. 경제 동향

[경제성장률]

헝가리는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서유럽 자본 유출과 수출 감소를 경험했으며 2009년에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다. 2013년에 IMF 및 World Bank 등에 부채를 전액 상환하며 경제 지표가 호조로 돌아섰다. 2014년에는 경제성장률이 유럽연합 내 최고 수준인 4.22%를 기록했다. 향후 2년간 성장이 다소 주춤했으나, 2017년에 세제혜택 확대 등으로 건설시장을 활성화하여 4%대 경제성장률을

회복했고 2019년까지 성장세가 유지되었다.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보다는 전염병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역성장을 보였다. 경제 주체들도 소비와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서 경제성장률은 -4.7%에 그쳤다. 2021년에는 백신접종과 함께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기저효과가 더해져 경제성장률 7.1%를 기록했다.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힘입어 헝가리 경제는 꾸준히 성장 중이다. IMF는 2022년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고, 이는 유럽연합 평균 성장률 예상치인 2.9%를 웃도는 수치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2022년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GDP 성장률은 7.3%이다. EBRD는 2022년 GDP 성장률 전망을 3.5%(5월 발표)에서 5%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2023년 성장률은 1.5%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업률]

헝가리는 글로벌기업 진출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전 세계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2017년 4%를 기록한 이후 3~4%대를 유지하다 2021년에도 자연실업률에 가까운 4.1%를 기록했다. 한국 진출기업을 포함하여 헝가리 소재 기업 대다수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아시아 등으로부터 인력을 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기준금리]

헝가리는 2016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0.9%로 유지했다. 이러한 통화 약세 전략은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헝가리 경제를 견인했다. 2020년 6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역성장이 예상되자 헝가리 정부는 기준금리를 인하해 0.75%로 조정했고, 한달 뒤인 7월에는 0.6%로 추가 인하했다. 2021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통화정책 및 전염병 관리 정책 등으로 사회가 차츰 정상화되며 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헝가리 중앙은행은 6%대의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연간 7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2021년 말, 기준금리는 2.4%로 마감됐다. 2022년 9월, 기준금리는 13%이다.

[물가상승률]

헝가리는 최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을 2~3%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2021년에 들어서며 코로나19의 영향력 약화에 따른 소비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포린트화 약세 및 물류난 등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21년에는 5%대로 유럽연합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2022년에는 9%대를 돌파하였다. 향후에도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실질임금 감소에 따른 소비력 하락 등이 우려되고 있다.

2022년 9월 헝가리 중앙은행(MNB)에 따르면, 9월 물가상승률은 2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상승률은 12.5~13.5%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 경제 전망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헝가리 역시 경제적 측면에서 타격을 입었다. 헝가리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금 감면, 임금 보전 지원 등의 정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에, Fitch Ratings, S&P Global Ratings 등 국가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등급 변화 없이 안정적 또는 향후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2021년에는 헝가리 정부의 대국민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빠르게 백신을 조달하여 전체 인구의 63%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고 이와 동시에 경제 재개방 정책이 시행되었다. 코로나19 영향력 약화와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등에 힘입어 헝가리 경제에 활력이 돌고 있다. 또한 親기업 기조가 강한 빅토르 오르반 총리의 5선 성공으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적극적인 임금 지원 정책과 더불어 EU 기금을 활용한 프로젝트, 주택 보조금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며 공공 지출을 늘려나가고 있다.

높은 물가상승률은 헝가리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2022년 초 연간 물가상승률은 9%로 예측됐으나, 9월 기준 전문가들은 연간 약 12.5~13.5%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1996년 이래 최고 수준의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 인상하고 있으며 주요 생필품과 유류비 가격 상한제 등을 펼치고 있으나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헝가리의 높은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등 취약성이 드러나며 포린트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33,922,087,003
2	이탈리아	6,651,270,109
3	슬로바키아	6,461,389,107
4	루마니아	6,407,896,041
5	오스트리아	5,909,933,790
6	체코	5,564,916,214
7	프랑스	5,465,314,497
8	폴란드	5,260,481,089
9	영국	4,628,404,357
10	네덜란드	4,440,165,308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33,921,901,074
2	이탈리아	6,510,571,825
3	슬로바키아	6,466,805,205
4	루마니아	6,246,746,031
5	오스트리아	5,691,264,569
6	프랑스	5,360,018,544
7	체코	5,283,117,910
8	폴란드	5,201,017,615
9	네덜란드	4,342,719,055

10	영국	4,095,545,844
----	----	---------------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33,512,489,645
2	슬로바키아	6,438,362,374
3	이탈리아	6,305,328,305
4	루마니아	6,250,741,557
5	오스트리아	5,242,525,340
6	프랑스	5,137,319,109
7	폴란드	4,924,868,257
8	체코	4,834,029,568
9	네덜란드	4,290,107,113
10	영국	3,752,672,305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31,774,143,569
2	오스트리아	7,203,582,595
3	폴란드	6,812,839,420
4	중화인민공화국	6,799,119,993
5	네덜란드	6,062,478,319
6	체코	6,005,472,070
7	슬로바키아	5,869,829,753
8	이탈리아	5,554,372,398
9	러시아	4,623,422,557
10	프랑스	4,477,474,638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30,773,365,399
2	중화인민공화국	7,520,679,147
3	오스트리아	7,270,350,837
4	폴란드	6,807,340,392
5	네덜란드	6,035,456,813
6	체코	5,882,272,467
7	슬로바키아	5,799,394,572
8	이탈리아	5,154,286,586
9	러시아	4,485,725,942
10	프랑스	4,403,689,315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독일	28,628,600,988
2	중화인민공화국	9,221,177,192
3	오스트리아	6,598,603,604
4	폴란드	6,547,635,237
5	체코	5,760,268,300
6	네덜란드	5,541,703,451
7	슬로바키아	5,344,731,530
8	이탈리아	4,746,698,749
9	프랑스	4,678,102,148
10	대한민국	3,935,073,789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5,564,932,237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431,528,874
3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3,887,352,724
4	300490	기타	2,777,057,724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2,374,276,684
6	8537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2,301,734,985
7	840820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2,233,179,193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2,215,508,874
9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2,173,296,066
10	870829	기타	1,434,858,256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4,194,080,422
2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4,172,675,096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3,707,494,169
4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3,376,693,791
5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2,855,053,129
6	300490	기타	2,766,387,898
7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2,391,062,197
8	8537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2,388,992,448
9	840820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1,828,659,140
10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459,828,752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 3,000cc 이하인 것	3,915,237,005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3,757,312,989
3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cc를 초과 1,500cc 이하인 것	3,183,121,829
4	852872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2,942,426,732
5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것	2,848,808,169
6	300490	기타	2,837,963,772
7	850760	리튬이온 축전지	2,729,114,728
8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 2,500cc 이하인 것	2,389,099,324
9	853710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2,241,958,010
10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48,050,266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8,688,333,585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207,589,327
3	300490	기타	2,129,522,258
4	271121	천연가스	2,121,939,944
5	870899	기타	1,910,270,913
6	271600	전기에너지	1,578,843,769
7	840991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	1,508,400,845
8	852990	기타	1,342,500,884
9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록(clock)·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256,785,353
10	854239	기타	1,221,523,003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7,296,170,699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880,184,060
3	271121	천연가스	2,310,326,068
4	300490	기타	2,100,819,751
5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595,756,289
6	271600	전기에너지	1,588,486,267
7	854239	기타	1,483,696,558
8	852990	기타	1,439,524,677
9	870899	기타	1,430,620,972
10	851770	부분품	1,418,052,468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6,924,682,451
2	300490	기타	2,111,709,264
3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1,688,119,494
4	852990	기타	1,685,558,524
5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505,113,026
6	271121	천연가스	1,485,938,594
7	851762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 · 변환용 · 송신용 ·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477,018,183
8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400,119,962
9	854239	기타	1,369,957,403
10	271600	전기에너지	1,272,587,417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8	1,967	694	1,273
2019	2,478	496	1,982
2020	2,926	678	2,248
2021	4,052	750	3,302
2022	3,766	486	3,280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828	14	813
2	8352	축전지	257	82	175
3	7901	기타기계류	362	3	359
4	2140	합성수지	267	0	267
5	8361	평판디스플레이	11	6	4
6	3103	필름류	233	1	232
7	2262	의약품	233	8	225
8	8138	전산기록매체	121	0	120
9	7411	승용차	106	68	38
10	7121	운반하역기계	115	0	11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452	24	1,428
2	8352	축전지	215	5	210
3	7901	기타기계류	187	4	183
4	2140	합성수지	166	0	166
5	8361	평판디스플레이	164	3	161
6	3103	필름류	128	0	128
7	2262	의약품	117	8	109
8	8138	전산기록매체	95	6	89
9	7411	승용차	92	57	35
10	7121	운반하역기계	82	0	8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106	68	38
2	7420	자동차부품	75	47	27
3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828	14	813
4	8127	무선교환기및중계기	3	24	-22
5	8126	레이더및항행용무선기기	0	26	-27
6	7111	원동기	2	31	-29
7	8422	전동기	12	24	-13
8	8423	전원장치	1	21	-21
9	8151	계측기	74	18	56
10	8425	자동화기기	2	3	-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92	57	35
2	7420	자동차부품	53	41	12
3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452	24	1,428
4	8127	무선교환기및중계기	19	18	1
5	8126	레이더및항행용무선기기	0	16	-16
6	7111	원동기	2	16	-14
7	8422	전동기	3	15	-12
8	8423	전원장치	8	14	-6
9	8151	계측기	32	14	18
10	8425	자동화기기	5	13	-8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태양광 패널		
HS Code	854140	수입액('21/US\$백만)	376.2
수입관세율(%)	0.0%	대한수입액('21/US\$백만)	0.6
선정사유	EU 2050 탄소중립 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집중 예정		
시장동향	헝가리 정부는 태양광 발전 용량을 '20년 기준 2GW에서 '30년까지 6GW로 확충 예정		
경쟁동향	독일(41.6%), 중국(24%), 일본(9.49%) 등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인구 규모가 작은 시장이므로 소량 거래로 시장 내 평판 구축 후 정부 조달 프로젝트 참여		
품목명 2	초음파기기		
HS Code	901812	수입액('210/US\$백만)	18
수입관세율(%)	0.0%	대한수입액('21/US\$백만)	2.8
선정사유	고령화에 따른 의료기기 수요 확대 전망		
시장동향	한국산 제품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		
경쟁동향	독일(34.4%), 네덜란드(26.3%), 중국(7.83%) 등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우수한 품질의 한국산 제품 이미지 강조, IT와 결합한 한국산 제품의 혁신성 홍보 및 체험 기회 마련		
품목명 3	연수기, 정수기, 이온수기		
HS Code	842121	수입액('21/US\$백만)	52.7
수입관세율(%)	0.0%	대한수입액('21/US\$백만)	1.3
선정사유	수처리 장치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헝가리 소비자의 수입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도		
시장동향	전년 대비 헝가리 총 수입 규모 15% 증가		
경쟁동향	독일(20.7%), 미국(17.27%), 이탈리아(8.41%), 네덜란드(7.59%) 등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적정한 시장 가격 설정과 함께 헝가리 포함 유럽의 수질 환경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필요		
품목명 4	히트펌프		
HS Code	841861	수입액('21/US\$백만)	24.1
수입관세율(%)	0.0%	대한수입액('21/US\$백만)	0.001
선정사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냉난방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 또한, 풍부한 지열에너지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		

시장동향	전년 대비 헝가리 총 수입 규모 65% 증가		
경쟁동향	이탈리아(27.5%), 중국(21.71%), 독일(20%) 등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현지 유망 디스트리뷰터와의 EU 맞춤형 기기 개발 추진 인증 획득 및 시장 진출 토대 마련		
품목명 5	공기 청정기		
HS Code	842139	수입액('21/US\$백만)	423.2
수입관세율(%)	0.0%	대한수입액('21/US\$백만)	6.4
선정사유	생산설비 증가에 따른 산업용 및 감염병 확산으로 개인위생 중요시에 따른 가정용 공기청정기 수요 증가		
시장동향	헝가리 기업 중 고품질의 공기 청정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없는 관계로 수입 의존도 높음.		
경쟁동향	독일(58.78%), 폴란드(9.64%), 멕시코(9.26%) 등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24시간 가동하는 경우도 있어 품질과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갖춘 진출 전략, 평판 구축을 위한 기업 대상 마케팅 수단 강구 필요		
품목명 6	애완용품 (사료 등 포괄)		
HS Code	230910	수입액('21/US\$백만)	226.1
수입관세율(%)	0.0%	대한수입액('21/US\$백만)	0
선정사유	헝가리 인구의 65%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이 가운데 50%는 매달 일정 금액의 관련 비용 지출로 시장 성장 가능성 보유		
시장동향	애완용품(사료 위주)의 수입 규모는 '16년 이래 지속 상승했으며 89.5% 증가율 기록		
경쟁동향	독일(30.2%), 폴란드(19.69%), 체코(11.64%) 등 EU권역 내 국가가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높아진 소득 수준에 맞춰 프리미엄 제품군 맞춤형으로 공략 가능하며 동시에 기술적 우위를 점한 제품군 진출 시도		
품목명 7	화장품		
HS Code	3304	수입액('21/US\$백만)	228.3
수입관세율(%)	0.0%	대한수입액('21/US\$백만)	2
선정사유	'20년 8월경 최초 오프라인 진출 등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꾸준한 인지도 상승		
시장동향	주름방지, 안티 에이징 등 얼굴용 화장품 인기 급증		
경쟁동향	독일(29.6%), 폴란드(15.96%), 크로아티아(10%) 등 주요 경쟁국		
진출방안	CPNP 인증을 바탕으로 현지 유망 유통업자 발굴이 중요하며 인구 규모가 작으므로 초기 샘플 제공 등 단계적인 접근 필요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관광산업
선정사유	헝가리 관광산업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지정하고, EU 기금을 투입하는 등 국가적 투 단행 중

시장동향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회복이 어려울 전망
경쟁동향	헝가리 내국 관광 프로그램과 더불어 오스트리아·영국 등 서유럽 국가에서 각종 헝가리 관광 상품 운영 중
진출방안	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상품 개발(차량, 투어, 가이드 등). 특히 헝가리 지방 도시 프로그램과 슬로베니아·크로아티아 연계 프로그램 개발로 진출 가능
품목명 2	비즈니스서비스센터 (BSC)
선정사유	정부의 전략적 투자유치 분야임. 헝가리인은 영어를 비롯하여 다수 외국어 구사(다양한 언어를 구사할수록 가치가 높아진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외국어에 관심이 높음)
시장동향	British Tobacco, Nuskin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 및 UNICEF 등 국제적 기구도 헝가리에 비즈니스서비스센터 (BSC) 걸립
경쟁동향	코로나19 확산 이전 역대 최저 실업률이 BSC 추진 최대 어려움이었으며 이는 경제 정상화 후 다시 이슈될 예정
진출방안	글로벌 한국기업들의 서비스센터 및 유럽 지역 관리센터를 헝가리에 설치하여 인건비 절감 및 효율적 관리 플랫폼 구축으로 활용 가능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FTA(Free Trade Agreement)	대한민국	2010-10-06	2015-12-13	2011. 7. 1. 잠정 발효 및 2015.12.13. 전체 발효
A(Agreement)	스위스	1972-07-22	1973-01-01	
CA(Co-operation Agreement)	시리아	1977-01-01		잠정 중단
CU(Customs Union)	안도라	1990-06-28	1991-01-01	산 마리노,모나코,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 중 (2014.12.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1.12)
CU(Customs Union)	산 마리노	1991-12-16	2002-04-01	산 마리노,모나코,안도라 3개국과 Association Agreement 진행 중 (2014.12.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2.7)
EAA(Economic Area Agreement)	노르웨이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리히텐슈타인	1992-05-02	1994-01-01	
EAA(Economic Area Agreement)	아이슬란드	1992-05-02	1994-01-01	
CU(Customs Union)	터키	1995-01-01	1995-12-31	
Co-operation agreement	스리랑카	1995-04-19	1995-04-01	
AA(Association Agreement)	튀니지	1995-11-17	1998-03-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스라엘	1995-11-20	2000-06-01	
AA(Association Agreement)	모로코	1996-02-26	2000-03-01	포괄적 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 DCFTA) 협상 추진중 (2013.3.1 협상개시, 2019.6 재추진) 협정 현대화 추진 중 (2021.9 추진)

PCA(Updat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아르메니아	1996-04-22	2018-06-01	잠정 발효
A(Agreement)	페로 제도	1996-12-06	1997-01-01	
IAA(Interim Association Agreement)	팔레스타인	1997-02-24	1997-07-01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러시아		1997-12-01	2008년 PCA 대체하는 RCA 협상 개시, 2010년 RCA 협상 중단
AA(Association Agreement)	요르단	1997-11-24	2002-05-01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1997-12-08	2000-10-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마케도니아	2001-04-09	2004-04-01	
AA(Association Agreement)	이집트	2001-06-25	2004-06-01	
AA(Association Agreement)	알제리	2002-04-22	2005-09-01	
AA(Association Agreement)	레바논	2002-06-17	2006-04-01	
AAAP(Association Agreement and Additional Protocol)	칠레	2002-11-18	2005-03-01	협정 현대화 추진 중(2017.11.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합의완료 2021. 10. EU의회,이사회 거쳐 최종 승인 계획)
Co-operation agreement	파키스탄	2004-04-09	2004-04-09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알바니아	2006-06-12	2009-04-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몬테네그로	2007-10-15	2010-05-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세르비아	2008-04-29	2013-09-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08-06-16	2015-06-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리포룸(CARIFORUM)	2008-10-15	2008-12-29	잠정 발효(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그라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도미니카공화국,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IEPA(Interim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카메룬	2009-01-15	2014-07-01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피지	2009-07-13	2014-07-28	
IPA(Interim Partnership Agreement)	파푸아뉴기니	2009-07-30	2011-05-01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동남아프리카(ESA)	2009-08-29	2012-05-14	잠정 발효(마다가스카, 모리셔스, 세이셸, 짐바브웨)중이며 코모로스도 2017년 7월에 체결하여 2019년 2월부터 잠정 발효
PCA(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이라크	2012-05-01	2012-08-01	잠정 발효
AA(Association Agreement with a strong trade component)	중앙아메리카(Central america)	2012-06-29		잠정 발효온두라스, 니카과라, 파나마(2013.8.1)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2013.10.1)과테말라(2013.12.1)
TA(Trade Agreement)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	2012-07-26		잠정 발효콜롬비아(2013. 8. 1.), 페루(2013. 3. 1.), 에콰도르(2017. 1. 1.)
DC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4-05-29	2016-01-01	
AA(Association Agreement)	조지아	2014-06-27	2016-07-01	
AA(Association Agreement)	몰도바	2014-06-27	2016-07-01	

SAA(Stabilisation and Association Agreement)	코소보	2015-10-22	2016-04-01	
EPCA(Enhanced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카자흐스탄	2015-10-26	2016-05-01	EU 국별 비준 완료 후 정식 발효 (2020. 3. 1. 부)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2016-06-10	2016-10-10	잠정발효(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2018. 2. 4.))EPA는 기존의 TDCA(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협정을 대체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가나	2016-07-28	2016-12-15	잠정 발효
EPA(Stepping sto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코트디부아르	2016-07-28	2016-09-03	잠정 발효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캐나다	2016-10-30	2017-09-21	잠정 발효. 이후 EU 국별 비준 후 정식 발효 예정
PDCA(Political Dialogue and Cooperation Agreement)	쿠바	2016-12-12	2017-11-01	잠정 발효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8-07-17	2019-02-01	
FTA(Free Trade Agreement)	싱가포르	2018-10-19	2019-11-21	FTA 내 투자분야는 별도로 두고 추진(현재 투자보호협정 회원국별 비준 진행중)
FTA(Free Trade Agreement)	베트남	2018-10-19	2020-08-01	2020. 2. EU 비준 및 2020. 6. 8. 베트남 비준완료. 2020. 8. 1. 부로 FTA 발효 (현재 투자보호협정IPA는 회원국별 비준 진행 중)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Mercosur)	2019-06-28		메르코수르 각 회원국별 의회 승인 후 잠정 발효 예정이며, * 메르코수르 회원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2018-04-21		2020. 4. 28. 부 협상 최종 타결
TCA(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영국	2020-12-24	2021-05-21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솔로몬 제도(Pacific)	2011-05-01	2020-05-17	

<자료원 : EU 집행위>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미국	협상 중, 직전 협상 2022.5	EU-미국 무역 및 기술 위원회 TTC 발족(2021.6.15.)
FTA(Free Trade Agreement)	말레이시아	협상 잠정보류, 직전 협상: 2012. 4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네시아	협상 중, 직전 협상 2021.11	
FTA(Free Trade Agreement)	필리핀	협상 중, 직전 협상: 2017. 2	
IPA(Investment protection agreement)	미얀마	협상 잠정보류, 직전 협상: 2016.12	
FTA(Free Trade Agreement)	인도	협상 중, 직전 협상 2022.6	2021.5.8. 협상 재개 합의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 중, 직전 협상 2022.2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 완료, 직전 협상 2022.6	EU-뉴질랜드 FTA 협상 완료, 향후 이사회 채택 이후 발효 예정
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협상 중.	2020.12.30. 타결 후 비준 추진중이었으나, 중국의 인권문제로 비준 추진 잠정 중단(2021.5.~)
EPCA(Enhanced Partnership Cooperation Agreement)	키르기스스탄	협상 완료, 직전 협상 2019.6	EU-키르기스스탄 EPCA 협상완료, 향후 이사회 채택 이후 발효 예정 (2022년 내)
A(Agreement)	우즈베키스탄	협상 완료, 직전 협상 2022.6	

<자료원 : EU 집행위>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 수입금지품목

EU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동물 실험 화장품, 물개 제품, 불법 벌채 목제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EU는 현재 홍합과 조갯살 등을 포함한 식품류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고 수입업체는 통관 시 위생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4대 분쟁광물(2021년 1월 1일부)

콩고 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채굴되는 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등 4대 광물 수입이 2021년 1월 1일부로 금지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반군·정부군 등 무장단체들이 채굴자금 유통을 장악해 군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광물채굴 과정에서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 등이 발생해 수입금지 통해 유흥분쟁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17년 관련 규정(No. 2017/821)을 제정하고 2021년부터 4대 광물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자에 대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의무화하여 해당제품에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2021년 7월 3일부)

EU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따라 면봉, 식기류(cutlery), 식품용기, 음료용 컵, 빨대, 풍선막대 등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이 2021년 7월 3일부로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된다. 전 세계 플라스틱 연 생산량이 1950년 2백만 톤에서 2015년 3.8억 톤 등 190배 증가했으며, 전체 플라스틱의 60% 이상이 자연으로 흡수되는 상황에서 EU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보다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소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집행위는 EU 지침 2019/904를 통해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동 지침은 2019년 7월 2일 적용되었으나 2년간의 회원국별 법령 수용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3일부로 시행된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인증제도와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들 수 있다. 인증의 경우,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요구하는 인증이 가장 많으며 기계와 자동차에 대한 인증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례로 굴착기, 휠로더, 스kid로더와 같은 건설 중장비의 경우, 기본적인 CE 인증 외에도 EU 각 회원국이 각기 다른 국내 도로 인증(Road Homologation)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 기업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중고장비의 수입제한을 목적으로 CE 마크와 적합성 인증서 외에 별도의 Newnes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때도 있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기계는 한국 인증기관이 아닌 유럽의 주요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CE 마크를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현지 A/S 센터 설립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U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증으로는 CE 마크, RoHS, REACH, CPNP, e-Mark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E 마크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의 프랑스어표기인 'conformite europeenne'의 머리글자를 딴 마크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통합 인증마크이다. CE 마크는 인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고 원산지를 명시하지 않으며, 다만 생산 과정이 EU의 요구 기준에 맞춰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마크는 1993년 7월 22일 도입된 인증으로 EU 지침 93/68/EEC을 통해 시행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CE 마크는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 기기, 의료기기, 선박 용품, 승강기,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장비 등 매우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되는 세부 품목 리스트는 아래의 EU 집행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CE 적용 품목 리스트 링크 :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ce-marking/manufacturers_en

o CE 마크 부착

- CE 마크는 제조업자 혹은 대리인이 부착해야 한다. - CE 마크는 확대 및 축소 시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 CE 마크는 읽기가 쉬워야 하고 견고하게,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 특성상 불가능할 때는 제품의 포장 및 사용설명서에 부착할 수 있다.

- 만약, 필요 때문에 통지 기관이 검사를 시행할 경우, 통지 기관 인식 번호 역시 CE 마크에 추가로 표시되어야 한다. 이 인식 번호 표시에 관한 책임은 제조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있다.

o CE 마크 대리인 규정

2021년 7월 16일 유럽연합은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Regulation (EU) 2019/1020]을 채택했으며 앞으로 CE 마크가 있는 모든 상품은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책임자로서 유럽연합 내 거주하는 유럽연합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유럽연합 내 상품의 규정 준수를 위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유럽연합 내 제조업체 또는 브랜드, 유럽연합 내 수입업체, 유럽연합 내 대리인, 유럽연합 내 배송 서비스 제공 업체 등이며, 대리인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상품의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 수집 후 유럽연합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유럽연합 표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별도의 문서* 제공

*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DoC), 기술문서(테스트보고서, 안전 인증서 등)

- 상품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해 관련 기관에 보고

-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상품의 규정 미 준수 문제 해결

2) RoHS -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 제한 지침

RoHS는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equipment의 약자로,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RoHS 지침 2011/65/EU 지침에 따라, 아래의 물질에 대해 규제치 이상을 포함한 전기·전자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납 : 0.1%

- 수은 : 0.1%

- 육가크롬 : 0.1%

- 폴리브롬화바이페닐 :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 : 0.1%

- 카드뮴 : 0.01%

- 프탈레이트 4종(DEHP, BBP, DBP, DIBP) : 0.1%(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중)

3) REACH -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규정

화학물질 관리 제도인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substances의 약자로 EU 내 연간 1톤 이상(3년 동안의 평균값) 제조 혹은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①화학물질과 ②혼합물(Preparation)에 있는 화학물질 그리고 ③완제품(Article)에서 의도적 (Intended) 또는 비의도적으로 배출 (Unintended release)되는 화학 물질을 관리 대상으로 한다.

○ 등록 대상

- 연간 1톤 이상 EU에서 생산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substance)
- 2개 이상 화학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의 경우, 각각의 화학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의도적으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의 경우(화학물질이 배출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연간 1톤 이상인 각각의 화학물질
- 고분자의 경우 단량체가 고분자 내 2% 이상 포함되어 있고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또는 고분자를 함유한 조제 제품 내 각 성분 총량이 연간 1톤 이상인 경우
- 연 1톤 미만 제조/수입자, 대리인, 하위 사용자, 물질 정보를 보유한 제3자도 물질정보교환포럼(SIEF : 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참여를 위해 사전등록* 가능

* 사전등록: 사전 등록은 등록 절차의 하나로, 사전등록을 해야만 함량과 물질 특성에 따라 3년 6개월~11년까지 본 등록이 유예된다. 2008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전등록이 마감되었으나,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연간 1톤 이상 수출하는 경우, 최초 수출 후 6개월 이내에 사전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사전등록을 마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톤수 별 유예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신고대상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배출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 및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 완제품에서 고 위험성 물질(SVHC;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이 비의도적인 배출(Unintended release)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함량이 완제품 대비 0.1% 이상이고 그 물질이 연간 1톤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 제품 및 공정 중심 연구개발을 위한 물질도 화학물질 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5년간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 물질 등록 절차

- 신청 및 제출: 화학물질 D/B 시스템 IUCLID(The 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내 물질 등록 및 관련 서류 제출
- 등록사항 : 물질 정보(화학물질 번호, 물질명 등), 기업명 및 담당자, 수입량, 물리학적 특성, 독성 정보 등과 함께 기술 서류(Technical Dossier), 화학물질 안전 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도 제출
- IUCLID 해당 홈페이지 : <http://iuclid.eu>
- 평가 : 서류 검증 및 질적 검사
- 물질 등록 서류 제출 후, 서류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동 검증이 시행되나 이는 모든 요구사항이 등재되었는지의 파악을 위한 단순 체크에 불과하다. 유럽물질화학청(ECHA :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등록된 물질 정보를 토대로 회원국들과 협의해 물질 별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질적 검사를 통해 등록신청 물질의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한다
- 질적 평가에서 거부당하는 경우 1회에 걸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나, 2번 이상 거부되는 경우에는 사전등록 절차부터 다시 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ECHA 지원센터 연락처 : +358-9-686180(헬싱키)
- 등록비용 지불 및 승인번호 부여 : 승인 결정 후 등록비를 지불하면 해당 물질의 등록 고유번호를 부여 받게 된다. 물질 등록 일은 해당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날짜로 지정된다.
- 등록 물질 공표 : ECHA는 등록 완료된 물질을 유럽화학물질청 공식 웹사이트(www.echa.europa.eu)에 공표한다.

4) CPNP(화장품 인증)

화장품을 EU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책임자 지정 및 유럽 화장품 인증이라 불리는 CPNP(The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EU 수출에 흔히 사용되는 CE 인증의 경우 화장품 제품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CE 인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CPNP 제도는 2013년 7월 11일부로 시행중이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내에서 규제되고 있다. CPNP 등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나뉜다.

- RP 지정 및 라벨링 : 수출기업은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RP(Responsable Person)를 지정하고 필요서류를 RP에 제출하는 한편, EU 기준에 맞는 라벨 작성
- 성분 및 라벨 검토 : RP는 수출기업에서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제품 성분과 라벨을 검토하고 이를 승인

- 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등록 :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제품 정보 파일(PIF : Product Information File)을 작성하고 CPNP 등록을 완료함.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은 EU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됨

실질적인 CPNP 등록 과정을 살펴보면, 수출기업이 사전 지정한 RP(또는 인증 대행사)로 제품 원료별 %가 명시된 전체 성분 표를 제출하면 RP가 제품별 테스트를 거친 후 가격 견적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양측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RP는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기업에 안내해준다. 이후, 수출기업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RP는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제품 성분을 검토(Formula Review)하고 제품 안전성 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또한, EU 기준에 맞는 라벨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출기업과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친 후 승인한다. 이후 RP는 제품정보파일(PIF)을 작성하고 CPNP 등록시스템 내 등록을 마친다.

RP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제품별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품정보, 제품 시험성적서, 성분 안전성 데이터, 제조번호, 성분표, 원산국명, 제품 출시되는 EU 회원국 명, 동물실험 테스트, 방부력 테스트, 안정성 및 적합성 테스트, IFRA 증명서 등이 있다. 제출되는 서류의 언어는 영어 또는 진출하려는 EU 국가의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EU 1개국만 바라보고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국가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 EU 회원국 내에서 통용되는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용이하다. 다만,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의 경우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로 개별 표기돼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라벨을 작성할 때 다수의 한국기업들은 마케팅 차원에서 제품 효능에 대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추가하고 싶어 여러 효과(진정성, 지속성, 주름개선 등)를 제품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CPNP 등록이 가능하므로, 증빙하기 힘든 문구들은 과감히 삭제하고 처음부터 확실한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다. CPNP 등록을 완료하기까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만일 서류가 부족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5) e-Mark

e-Mark는 자동차 산업분야에 관련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유럽시장에 자동차 및 자동차 관련 부품을 판매하기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 검사 제도이다. e-Mark는 제조자가 스스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는(Declaration of Conformity) CE 마킹과 달리, EU 각국의 인증기관이나 그 인증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에서 형식승인 시험 후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시험 소요기간은 완성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1~2개월 소요되며, 부품류의 경우 대부분 2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ISO 9000을 획득한 제조기업은 생산 절차의 적합성이 인정돼 기관의 면밀한 검사 없이 형식승인 획득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 안전한 제품 제조 여부 확인을 위한 공장시설 및 생산절차 등 현장 검사가 시행될 수 있다. 또한, 형식 승인이 완료되면 인증 마크와 번호를 부여 받게 되는데, 마크에는 EU 개별국의 고유 번호가 매겨진다. 1개 회원국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회원국의 별도 승인 없이도 역내 자유로운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 EU 회원국 고유번호 예시 :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네덜란드, 5=스웨덴, 6=벨기에, 9=스페인, 11=영국, 12=오스트리아, 13=룩셈부르크, 17=핀란드, 18=덴마크, 21=포르투갈, 23=그리스 등

6) 보조금

인증제도 이외에도 EU는 반덤핑 및 반 보조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2020년 6월 7일, EU 집행위는 정부보조금을 받은 역외국 기업의 역내시장 경쟁 왜곡을 차단하는 규제 백서(White Paper on Foreign Subsidies in the Single Market)를 발표했다. 역외국 기업들이 보조금 수혜를 통한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해 EU 시장에서 역내 기업들과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기업인수, 공공조달 분야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현행 제도로는 이들 기업의 규제가 힘들어 보다 강화된 규제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이번 백서에서 아래와 같은 3가지 규제수단을 도입하며 해당 이해관계자 의견을 2020년 9월 23일까지 수렴했다. 집행위 차원의 내부적 평가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2021년 중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2021년 5월 집행위는 기업인수와 공공조달 입찰 시 EU 역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정황이 발견될 시 집행위에 이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하였다.

- 일반(사후규제) : 특정 기업인수 건에 대해 인수자금 및 보조금 내역 사전 신고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시정방안제출 조건부 승인 혹은 기업 인수 금지 조치

- 기업인수(사전규제) : EU 내 영업 중인 기업이 과거 3년간 20만 유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저가판매 등 경쟁 왜곡 여부를

심사하여 자산매각?투자금지 등 금전적 제재 부과. 피인수기업의 EU 지역 매출액이 5억 유로 이상이거나 EU 역외 지역 인수기업의 투자 자금이 5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인수건에 대해 EU 역외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경향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공공조달 및 EU 펀딩(사전규제) : 특정 공공조달이나 기금마련(펀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찰 기업에 보조금 수령 관련 정보 제출 요구. 부당한 혜택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입찰이 불가하며 펀딩 프로젝트 참여 역시 배제. EU 역외 정부가 EU 지역 내 2억5천만 유로 이상의 공공조달 입찰 건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한 경향이 있을 시 EU집행위가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초안을 발표했으며, 2022년 3월 이사회는 일반적 접근을 채택하고 2022년 6월 의회에서 수정안을 채택한다. 이사회와 집행위의 입장은 유사하나, 의회는 과도기 / 무상 할당 폐지 시기 / 배출 범위 관련 집행위와 입장 차가 있으며, 2022년 10월 삼자 협의의 진행이 예상된다. 향후 삼자 협의를 통해 규정(안) 내용을 확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CBAM은 역내로 제품 수입 시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배출권)를 구매,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관할 당국에 승인 받은 수입업자가 제품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 후 해당 수입에 대해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당국에 신고·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안의 적용대상 제품은 배출량이 큰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이며 유럽의회는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를 추가로 제안했다. 적용대상 제품 HS 코드 별 세부 품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EU의 CBAM 적용 대상품목 (자료: EU 집행위)

분야	HS코드	HS 세부코드
시멘트(4개)	25	252310, 252321, 252329, 252390
전력(1개)	27	271600
비료(5개)	28, 31	280800, 2814, 283421, 3102, 3105(HS 310560은 제외)
철강(38개)	72	7201, 7203, 7205, 7206, 7207, 7208, 7209, 7210, 7211, 7212, 7213, 7214, 7215, 7216, 7217, 7218, 7219, 7220, 7221, 7222, 7223, 7224, 7225, 7226, 7227, 7228, 7229 73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
알루미늄(8개)	76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한편, EU의 이 같은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추진에 대해 자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하락을 우려한 여러 국가들이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EU 탄소국경조정세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만약 도입하는 경우 유럽의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은 EU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역시 유럽 탄소국경조정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업계는 EU가 테스트 차원에서 시멘트 등 산업 파급력이 다소 적은 분야를 선두로 적용한 후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 누출이 큰 다른 산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소국경세가 실제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역외국 수출 기업은 물론 중국, 인도 등 탄소배출 기준이 적은 국가에서 원자재 또는 중간재를 들여와 역내에서 가공·판매했던 EU 기업들 역시 영향을 받게 돼, 역내 공급망(GVC)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EU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8) EU 공급망실사 지침 (Supply Chain Due Diligence Directive)

2020년 4월 법안 수립 계획을 밝힌 뒤, 2022년 2월 집행위 초안을 발표했다.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EU 역내외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심, 인권환경 관련 공급망 내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여 예방완화피해 구제 조치 시행의 의무화다. 이번 지침의 대상으로는 고용인원 및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역내외 대기업, 고위험 산업군(섬유, 광물, 농업, 임업, 수산업) 중견기업으로 협력사와 실사준수계약 체결 등을 통해 전 공급망에 걸친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및 완화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실사업무 이행에 대한 보고서 또는 성명서를 기업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EU 회원국은 감독기구를 지정하여 실사업무 이행을 감독하고, 집행위는 유럽 감독기구 연합회

(European Network of Supervisory Authorities)를 설립하여 감독기구 간의 협력 및 조사, 제재 등에 대한 협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회원국 별 국내법 입법 과정에서, 위반시 제재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수준이 상이할 전망으로 입법 동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TBT

기술 장벽은 현재 EU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으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 등에 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럽 내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지속 심화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1) 장난감 내 화학성분 기준 강화

EU는 어린아이의 신체와 직접 닿는 장난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년간 거의 개정 없이 유지되던 EU 장난감 안전 규제는 2009년 신안전지침(2009/48/EC)이 공표된 후로 지속 심화하고 있다. 특히 장난감 내 함유되는 화학성분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2020년 11월까지 총 14건이 개정), 가장 최근 변경된 화학물질은 2019년 11월 알루미늄(Aluminium) 및 페놀(Phenol)에 관한 내용이다.

○ 장난감 안전지침 역대 개정 내용

- 2012년 3월, Cadmium 허용치(migration limits) 조정
- 2013년 7월, Barium 허용치 조정
- 2014년 6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TCEP, TCPP, TDCP, BPA 함량 제한
- 2014년 6월, Nickel 허용 품목 조정
- 2015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Formamide, BIT 및 CMI, MI 함량 제한
- 2017년 3월 Lead 허용치 조정 - 2017년 5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및 BPA 함량 제한 - 2018년 5월, Chromium VI 함량 제한
- 2019년 11월, Aluminium 허용치 조정
- 2019년 11월, 36개월 미만 유아용 완구 및 구강 접촉 완구 내 Monomer, Phenol 함량 제한 등

2)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사용제한

강화 2018년 2월 14일, EU 집행위는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비스페놀 A 함유량을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 No.2018/213을 채택했다. 비스페놀 A(이하 BPA)는 플라스틱 물질 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 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최근 유럽 내 BPA 위해성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2006년부터 식품 용기에 들어가는 비스페놀A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위해성에 대해 지속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도 물질 사용을 지속 강화하고 있는데, 집행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1년부터 영·유아용 젖병 내 BPA 사용을 금지했으며,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는 일정 제한치(0.6mg/kg)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유럽물질화학청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는 2017년 6월, BPA 물질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REACH 고 위험성 물질 목록(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에 올렸다. 집행위는 내부적 분석을 통해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물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최대 허용기준을 0.6mg/kg에서 0.05mg/kg로 낮추기로 했다. 이 밖에도 통조림 제품의 경우, 제품 내벽의 부식방지를 위해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BPA가 들어가므로, BPA 제한 용량(0.05mg/kg)을 니스 및 코팅제로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니스 및 코팅제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적합성 선언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을 의무화한다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원국 당국의 요청 시 기업은 10일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제조 및 적합성 선언 기업정보(기업명 및 주소)
- 적합성 선언 작성 시기

- 제조 시, EU 규정 No.1935/2004 내 3, 15, 17 조항의 준수 여부
- 니스 및 코팅제가 사용되는 제품 정보(식품군 종류, 식품처리에 사용되는 온도, 기간 등) 및 제조품 정보

이 밖에도, 집행위는 3세 이하 영·유아의 경우 소량의 BPA 노출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의 병과 컵에 BPA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2018년 9월 6일부터 플라스틱 식품 용기 내 BPA 0.05mg/kg를 초과하는 제품과 BPA가 함유된 영·유아용 물병과 컵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회는 관련 제조기업들이 향후 BPA 대체 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 역시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 Risk Assessment Committee) 역시 BPS는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조기업의 BPS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이 같은 추세로 향후 EU 내 BPA 물질 금지분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사료되며 BPS 물질 제한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돼 우리 기업의 예의주시가 요구된다.

3) 화장품 원료 규제 강화

2020년 2월 27일부로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역내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U는 피부와 직접 닿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페니페놀 물질의 최대 허용 농도 제한(11월) 및 일부 메리골드 물질 사용을 금지(7월)한 바 있다. 올해부터 제한이 강화된 물질은 아래와 같다.

- (사용금지 물질)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및 염산염(2-Chloro-p-Phenylenediamine, 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

염색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물질의 경우, 지금까지 마스크라와 아이브로우 제품에서 최대 4.6%까지 허용됐다. 유럽 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는 상기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해당 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고,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황산염 및 염산염(its sulfate and dihydrochloride salts)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 구조가 같으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하며, 금지 제품에 염색약도 추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집행위는 이 같은 과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스크라, 아이브로우 및 헤어 염색약 내 해당 물질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 (허용량 제한) 클림바졸(Climbazole)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크림바졸의 경우,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됐으나 과학위원회는 이번 평가 후, 기존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므로 제품에 따라 아래와 같이 0.2~0.5% 이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 로션, 크림, 발 전용 제품 : 최대 0.2%까지
- 샴푸는 0.5%까지만 안전(비듬 샴푸의 경우에는 2%까지 허용)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 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 최근 역내 K-뷰티 열풍에 힘입어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보다 주시해 우리 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에 따라 완제품에 포함된 고위험 우려 물질에 대한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는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신고제도가 2021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해당 신고제의 목적은 폐기물 처리자로 하여금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위험 우려 물질(SVHC)이 포함된 완제품이 시장에서 점차 퇴출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고위험 우려 물질을 중량 대비 0.1% 이상 함유한 완제품을 공급하는 EU 내 모든 기업은 제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SCIP 신고를 위해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2020년 10월 28일 우려 물질을 함유한 제품 정보를 공개하는 SCIP데이터베이스를 개설했

다. 따라서 신고된 물질은 다음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echa.europa.eu/de/scip>)

5) 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시행 (예정)

신 체외진단기기법[IVDR : Regulation(EU)2017/746]이 2017년 5월25일 발효된 이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5.26일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기존 지침(IVDD: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대비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유럽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없이 자가 적합성 선언 후 시판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 등급 분류에 따라 유럽 공인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 수행이 필요하다. (체외진단기기 유형 분류 시스템을 위험 등급에 따라, 가장 낮은 Class A에서 가장 높은 Class D로 분류, Class A 등급을 제외하고는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필수 인증 취득 필요함) 관련해 앞으로도 EU에서 판매 예정인 체외진단기기들은 엄격한 임상적 증거 제출하고 시판 뒤에도 사후 감독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관련업체는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6) 한국 인스턴트 라면류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강화

아시아에서 수입된 인스턴트 라면 및 식물 성분 함유 건강보조식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 오염 가능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EU 집행위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규정 (EU) 2019/1793를 개정하여 제3국 수입 식품 검역을 강화하였다. 개정된 규정 (EU) 2021/2246에 따라 부속서에 등재된 규제 대상 품목의 EU 수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선적 전 정밀검사를 통해 EU의 최대 허용 잔류 기준을 준수했다는 시험성적서와 검사 공식증명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만 한다. 시험성적서는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식증명서의 경우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 EU) 2021/2246 부속서 II에 등재된 한국 대상 품목 및 수입 요건

- 규제 대상품목(CN 코드): 식물 성분 함유 건강보조식품(ex 1302, 2106), 인스턴트 라면(1902 30 10)

- 수입 요건

공식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에틸렌옥사이드의 최대 잔류 수준 준수 여부 검사 증명서 제출

검사증명서: EU 공식증명서(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행), EO 시험성적서(국내 지정 공식검사기관 발행)

* CN 코드: CN Code는 HS code 공통 6단위 하에 2단위를 추가하여 사용하는 코드

** 에틸렌옥사이드 검역 강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브뤼셀 무역관의 해외시장 뉴스 'EU, 2월 18일부로 에틸렌옥사이드가 함유된 한국산 식품에 수입강화조치 시행' 참고 요망

기타

○ EU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철강 품목의 쿼터(수입제한 물량) 내 수입 물량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해당 조치는 미국이 2018년 3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아시아의 철강이 유럽 시장으로 몰릴 것을 우려하여, 유럽 집행위원회가 유럽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26개 철강재 및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치이다. 지난 2020년 7월 01일부터 모든 국별 쿼터를 연간에서 분기별로 변경하고, 대규모 철강 수출자의 잔여쿼터 접근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개정안이 발효 되었고, 해당 개정안에 따른 3차연도 세이프가드는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유럽철강협회(EUROFER)가 세이프가드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고, 또한 EU 12개 회원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핀란드, 헝가리, 스페인, 체코, 벨기에, 불가리아 회원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핀란드, 헝가리, 핀란드, 스페인, 체코, 벨기에, 불가리아))이 세이프가드 연장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역내 생산, 소비 및 고용 등, 철강 수입으로 업계 불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2021년 6월 10일 EU 집행위는 WTO에 역외국 철강재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3년(2021.07.01~2024.06.30) 더 연장하겠다고 통보했다. 집행위는 현재 방식과 동일한 총 26개 품목 내 쿼터제를 시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연도별 3% 중량 방식 역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7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 관세는 크게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최혜국 관세(MFN; most-favoured-nation)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협정 특혜관세는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되며(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최혜국 관세는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 (참고) 일반특혜관세제도 분야별 해당국가 리스트(2021년 5월 12일 확인 기준) :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19/may/tradoc_157889.pdf

현재 GSP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EU 집행위는 만료를 앞두고 2021년 9월 22일 개정안을 제안했다. 특히 집행위는 GSP 참여국이 인권·환경보호·거버넌스와 함께 이민문제 해결에 협력할 것을 개정안에을 통해 제안하고 있다. 또한 GSP 수혜국이 준수해야 할 기존 27개 협약중 6개 협약이 추가됐으며, 특혜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특혜 철회절차를 1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EU 의회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후 승인이 되면 최종 채택 될 예정이다.

1) 관세율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 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2021년 5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vat-rates_en

한편, 22유로 미만 소규모 제품에 적용돼왔던 VAT 면제제도는 고부가가치 소형제품 판매가격을 22유로 미만으로 허위 작성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7월 1일부로 폐지되어 현재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가 부과되고 있다.

3) 관세제도 신규내용

2020년 9월 28일, EU 집행위는 현행 관세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해 보다 통합된 관세동맹을 위한 관세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관세 행정시스템 수준이 다소 상이해, 시스템이 비교적 취약한 회원국 내 불법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도 보다 탄력적인 관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회원국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세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역내 수입 관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가 추진 예정인 관세동맹 액션플랜은 크게 전자상거래 관리, 법규준수, 리스크 관리, 관세행정 협력 등 4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2024년 1월까지 전자상거래 기업의 VAT 납부여부에 대한 관세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해 수입물품의 판매처 추적, 저가신고 차단 등 통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관세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규준수 분야는 현재 시행중인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2021년 하반기 중 추진해 AEO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위조품 등의 역내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화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EU 차원의 공동된 제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리스크 관리 분야의 경우, 현행 EU의 수입물품 전자신고 관리시스템(ICS2; Import Control System)을 2024년까지 개선해 회원국간 보다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코로나19 대응위한 의료품목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연장(2022.1.1)

2022년 1월 1일,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품목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관세·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U는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심전계, 호흡기, 진단시약 등 총 41종의 의료품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2020년 1월 30일부터 면제해오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중요 의료물자의 안정적 수급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3차례 연장되었다.

○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개정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하는 EU 전자상거래 VAT 개정법을 2020년 2월 채택해, 2021년 7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동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IOSS(관부가세 신고 간소화 시스템) 플랫폼 신규 도입, 역외 수입 상품의 VAT 면제 조건 폐지, 부가세 준수 책임 이전 (판매자→플랫폼 사업자) 등이다.

○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 제안

2022년 4월 27일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우크라이나의 생산·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년간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을 제안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EU의 수입 쿼터제가 적용되는 농산물과, DCFTA 체결로 단계적 관세 적 관세 철폐 중에 있던 비료,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일부 공산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EU 내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우크라이나 면제 및 우크라이나에 부과된 기존 반덤핑 관세 조치 해제도 이번 제안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제안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동시에 역내 식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유럽 의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발효 될 전망이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관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이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 주요 무역항: 헝가리는 내륙 국가로 바다와 접해 있지 않으나 도나우(다뉴브)강을 통해 반경 1,400km 내 8개의 항만과 연결돼 있다. 보통 수출입 화물은 독일 함부르크항이나 흑해연안의 항구를 통해 육상 운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벌크화물은 도나우강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주로 함부르크, 코페르, 리에카항을 이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가까운 크로아티아의 코페르와 리에카항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참고로 헝가리 정부는 자국 내 무역항이 없다는 점을 개선하고자 이탈리아 트리에스테(Trieste) 지역에 자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항구 부지를 구입했으며 현재 건설되고 있다. 완공될 경우 연간 2백만 톤의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무역항별 물동량: 헝가리 내 무역항 부재로 미작성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 주요 공항: 헝가리의 국제공항은 수도 부다페스트를 비롯하여 주요 대도시 등지에 총 6개가 있다. 하지만 승객의 90%는 부다페스트 국제공항(Budapest Ferenc Liszt International Airport)을 이용하고 있다. 이 밖에 데브레첸 공항(DEB), 죄르 공항(QGY) 등이 있다.

○ 주요 공항 물동량: 2021년 6월 기준 부다페스트 국제공항의 물동량은 157,402톤으로 연간 단위로 최고치를 기록한 2018년의 146,113톤을 이미 초과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0년 물동량은 134,456톤을 기록했으며 55%는 수입, 45%는 수출로 균형 잡힌 물동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여객 운항도 2013년 이래 2019년까지 지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했으나 2019년 기준 16,173,489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된다.

3) 유의사항

헝가리는 무역항이 없고 7개의 국가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항공과 내륙운송을 통한 물류 이동이 이뤄지고 있다. 항공을 통해 운송하더라도 결국 최종 목적지까지는 내륙운송 수단을 활용해야 하며 부다페스트로 운송할 경우에는 구역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중인 대형 차량의 진입 규제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출입 금지 구역과 일부 제한 구역으로 나뉘져 있으며 일부 제한 구역은 차량 무게와 시간대에 따라 진입 가능여부가 달리 설정되어 있다. 출입을 위해서는 온라인 TOBI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차량의 무게와 배출량에 따라 이를 위한 출입증 비용이 계산되며 부다페스트 시장실의 최종 승인을 득한 이후에 이동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urbanaccessregulations.eu/countries-mainmenu-147/hungary/budapest>

4) 기타 참고사항

○ 육로운송 사전 전자등록제(EKAER): 헝가리는 7개국과 국경을 면하고 있는 내륙국가이다 보니 모든 화물이 육로를 통할 수밖에 없다. 육로를 통한 화물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속이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육로운송 사전 전자 등록제를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자등록제란 화물 운송에 대해서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운송에 대한 필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탈세 행위를 근절하고 상품 유통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규정을 준수하는 경제 운영자의 시장 지위를 강화하고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과 관련된 사기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육로운송 사전 전자등록제 적용 대상은 도로 통행료 지불 대상 차량(즉, 최대 총 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차량)에 해당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 화물종류
- 무게 및 개수
- 화물가액
- 운송트럭 차량 번호 등

하지만 특정 제품의 경우 사전 전자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재난 구호에 참여하는 구호물자 또는 차량, 운송되는 화물의 수량/가치가 법률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법률에 명시된 특정 소비재를 운송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비 위험 제품의 순 가치가

2백만 포인트 이하이며 중량이 2.5톤 이하인 경우에도 전자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반대로 특정 제품(위험 식품 및 기타 위험 제품)의 사전 전자등록 의무는 도로 통행료 지불 대상이 아닌 차량(최대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위험한 식품에 대한 중량 한도는 200kg 또는 금액 기준 25만 포인트이며 기타 위험 제품은 500kg 또는 100만 포인트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적발될 경우,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미신고 물품 가치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불이행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헝가리 국세청은 체납 과태료의 범위 내에서 물품을 압수할 수 있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통관절차 개요

2004년 5월 EU 가입으로 통관절차는 EU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 주요 절차는 수입신고 및 심사→물품검사→관세 납부이다. 일반적으로 화물이 보관된 화주의 장치장에 세관원을 파견해 검사 및 통관을 시행하는데 화물 도착 후 8일 이내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관세는 통관 시 지불해야 하며, 부가세도 선납해야 한다. 헝가리는 EU 가입과 더불어 전산화 힘입어 세관 행정은 많이 개선됐으나, 통관절차는 아직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U 법규에 따르면 기업들은 EU 역내에서 제품을 통관할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통관 상의 문제 때문에 다수의 외국 기업이 통관국을 여타 회원국으로 옮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통상적으로 현지 진출기업들에서는 한국에서 헝가리까지 제품을 배송하는데 40~45일 걸린다고 한다.

필요 서류로는 수입신고서, 수출상이 발행한 송장, 원산지 증명서, 수입허가서(수입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품 경우), CE 인증, 위생검사증(산 동물, 육류 등), 식물 병리학 검증서(식물, 채소, 과 일류), B/L 등을 통관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관세율이나 통관절차는 EU 기준을 따르게 돼 있어 EU의 TARIC(The Integrated Tariff of the Community)에 의한 품목별 수입 규정을 따르고 있다. 한편, 품목별 수입 관세는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customs/customs_duties/index_en.htm)

세관의 조사는 관련 Customs 규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며, 통관서류 검사, 물품확인, 수입자 조회 등으로 이루어진다. 검사는 세관의 공식적인 확인으로 끝나지만, 미수품이나 수입상의 범법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이관될 수도 있다. 세관 자체의 조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z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다른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했다.

2) 헝가리 공항 및 무역항

헝가리 국제공항인 리스트 페렌츠(Liszt Ferenc) 공항은 1, 2A, 2B 3개의 터미널로 구성되어 있으나 1 터미널은 2012년 5월 이후 여객

운송은 중단된 상황이다.

과거 헝가리와 한국 간 직항은 없었기 때문에 인근 국가를 경유해야 했다. 게다가, 2012년 2월부터 헝가리 국적기인 말레브(Malev)가 파산하였다. 수 년 동안 재정적자 상태였던 말레브는 그간 정부 지원을 받아오다 헝가리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말레브 파산으로 이를 대신하여, 헝가리 저가 항공사인 Wizz Air가 활발히 근거리 유럽국가로 헝가리 승객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일부 원거리에 위치한 모스크바, 아이슬란드, 두바이, 텔아비브 등까지 항공을 연결하고 있다.

2019년 9월 23일 인천-부다페스트 간 폴란드 항공(LOT)의 직항 신규 취항을 시작으로 2020년 2월에는 대한항공의 신규 노선 취항식이 개최되었다. 취항식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강타한 코로나19 사태로 대한항공의 취항은 보류되었으며 폴란드 항공의 경우 중단되었다가 재개하여 주1회 운항 중이다. 인천-부다페스트 간 직항으로 인해 양국 간 물자(대한항공의 화물 카고 운영)와 인력 교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직항 운항으로 소량 제품의 샘플 발송이 원활히 이뤄져 비즈니스의 절차가 일부 수월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직항이 없을 때, EMS를 통한 제품 송부의 경우 보통 영업일 기준 7~9일, DHL은 3~4일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 기간이 현재는 단축되어 보다 빠르게 배송되고 있다.

헝가리는 내륙 국가로 바다와 접해 있지 않으나 도나우 강을 통해 반경 1,400km 내 8개의 항만과 연결되어 있다. 보통 수출입 화물은 독일 함부르크 항이나 흑해연안의 항구를 이용하여 육상 운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벌크화물은 도나우 강을 주로 이용한다. 한국 기업들은 주로 로테르담, 함부르크, 코페르(Koper)항을 이용하고 있으며 슬로베니아 코페르항에 대한 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통관 후 감사(Post-clearance audit)

2008년 제정된 신규 법안은 통관 후 감사와 관련된 결산자료에 관해 규정했는데, 예컨대 기업이 공인경제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인증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업의 수입경력에 대한 최종 검사는 통관 후 감사(Post-clearance audit)에 고려되지 않는다. 아울러, 세관 사무소가 기업에 대해 통관 후 감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먼저 공식 문서를 통해 그 시작을 통보해야 한다. 한편, 관세 체납에 대해 세관 당국은 급여 또는 동산/부동산 압류 등의 즉각적인 세금 징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2) 육로운송 사전 전자등록제(EKAER)

헝가리는 7개국과 국경을 면하고 있는 내륙국가이다 보니 모든 화물이 육로를 통할 수밖에 없다. 육로를 통한 화물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거나 속이는 경우가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육로운송에 대해서 사전 전자등록제를 2015년부터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전자등록제란 화물 운송에 대해서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물건의 종류, 수량, 운송차량 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세금을 산출해 지하경제를 표면으로 이끌어낸다는게 주안이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간혹 이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는 기업들이 있다. 간혹 물건의 수량이나 제품의 종류가 사전에 등록한 내용과 다를 경우, 해외 포워더 측 잘못이 있을지라도 이에 관한 책임을 헝가리 수령자에게 묻는다는 것이다. 미신고 대상에 대해 벌금이 화물가의 1/3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헝가리 세무당국에 의해 압류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헝가리로 통관 및 운송을 이용할 경우,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전에 상호 간 공급자와의 조율이 필요하다. 2021년 1월부터 신고 의무 대상 품목이 법령 Decree 51/2014/(XII. 31.)에 정의된 제품에 대해서만 포함되며 이전에 risky products로 분류된 내역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헝가리 정부에서는 EKAER 시스템에 따른 지하경제 축소, 세금포탈 방지 등 순기능을 높이 사 동 제도를 향후 철도 등으로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까지 구상하고 있다.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에서도 이에 대한 진출 기업의 어려움을 현지 정부 측에 전달하고 있다. EKAER 시스템 도입 시 상당수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정책에 대한 혼란을 겪었으며, 헝가리 외투 기업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중인 독일인 진출 기업 모임 '형-독 상공회의소'에서도 이에 따른 독일계 기업들의 애로점 전달 및 완화된 수준의 정책 도입을 적극 권고하기도 했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Waberers Group

주소	Budapest, Nagykrösi út 351, 1239
전화번호	+36-1-421-6666
이메일	info@waberers.com
홈페이지	http://www.waberers.hu

○ GABO55

주소	Mogyoród, Szentjakab park 9, 2146
전화번호	+36-28-540-660
이메일	gabo55@vnet.hu

○ Raben Trans European Hungary

주소	Dunaharaszti, Jedlik Ányos út 31, 2330
전화번호	+36-24-502-000
이메일	info@wincanton.hu
홈페이지	https://www.raben-group.com/

○ ÁTI Depo Zrt.

주소	Baja, Szentjánosi u. 12, 6500
전화번호	+36-79-323-255
이메일	mail@atidepo.hu
홈페이지	http://www.atidepo.hu

○ Intercargo Hungary Kft.

주소	Bp Budapest, 1117, Hauszmann A. út, Hauszmann Alajos u. 3/b, 1117
전화번호	+36-1-425-2240
이메일	info@intercargo.hu
홈페이지	http://www.intercargo.hu

○ Geodis Calberson Hungaria

주소	Budaörs, Seregely u. 8, 2040
전화번호	+36-1-880-9300
이메일	info@intercargo.hu
홈페이지	https://geodis.com/

○ Expeditors International Hungary Kft.

주소	Vecsés, Lrinci u. 61, 2220
전화번호	+36-29-552-600
이메일	info@intercargo.hu
홈페이지	http://expeditors.com

○ AIRMAX CARGO BUDAPEST ZRT.

주소	Vecsés, 2220
전화번호	+36-29-801-801
이메일	info@intercargo.hu
홈페이지	http://www.airmaxcargo.com/

○ 팩트라

주소	Budapest, Madarász Viktor u. 47, 1138
전화번호	+36-30-226-7800
이메일	gh.kim@pac-tra.com

○ 하나로TNS

전화번호	+36-1-550-0010
이메일	will.shin@htns.com

○ 한솔로지스틱스

주소	Budapest, Karoly krt. 11 1/A. 1075
----	------------------------------------

전화번호	+36-1-781-4885
이메일	btlee@hansol.com

○ 판토스

전화번호	+36-1-781-4885
이메일	daniel.na@pantos.com

○ Ilog Hungary Customs and Logistics Services Kft.

주소	Budapest, Eperjes u. 76, 1204
전화번호	+36-24-410-264
이메일	kristof.gebei@ilog-hungary.hu
홈페이지	http://ilog-hungary.hu/

<자료원 : European Commission, 각 업체 홈페이지>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헝가리는 1998년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시장경제 체제에 적합한 회사 설립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The Company Act'를 제정했는데 경쟁제한 금지, 독점금지, 채무자 및 공공의 이해 침해 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1991년, 1992년 개정된 바 있다. 아울러 투자 회사의 부분 철수 또는 완전 철수 시에 투자금과 이익금의 자국으로의 송금 보장,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Foreign Investment Act'를 1988년 마련했다.

이 법안은 1991년 사전 허가 요건을 대폭 완화해 신고제를 등록제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돼 외국인 투자 절차가 간소화됐다. 한편, 1991년에는 외국인 참여를 통한 사회 간접자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분야의 개발 및 운영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The Concessions Act'를 제정했으며, 같은 해 한계·부실기업의 파산을 규정한 'The Bankruptcy Law'의 제정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법인운영을 위한 법규로는 1991년에 제정된 'The Law on Securities'와 1994년에 제정된 'the Commodity Exchange Legislation'이 있다. 이 법규들은 내국민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2014년 외국인의 헝가리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등을 국내 기업과 무차별하게 운영한다는 Government Decree 210_2014(VIII.27.) Commission Regulation(EU) No. 651/2014가 추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기타 관련 법규

- The Competition Law(1990): 불공정경쟁 금지
- The Account Law(1991): 서구식의 기업회계제도 도입
- Government Decree 171/1991: 외국인합작법인 또는 외국인에 의한 헝가리 내 부동산 취득에 관한 규정
- The Labor Code(1992, 2012 개정) 및 Government Decree 7, 13/1991(외국인 취업) 등

투자인센티브

헝가리 투자인센티브는 세제 혜택 및 현금 보조금 지원이 대표적이며, 저금리 대출, 무료 또는 낮은 가격으로 토지 제공이 있다.

1) 세제 혜택(Development Tax allowance)

헝가리 투자기업은 기업의 결정에 따라 법인 설립 시의 과세연도 또는 다음 과세연도에 지역별 인센티브 한도 내에서 최대 80%의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 감면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6년 이내에만 행해진다. 헝가리 법인세는 2020년 전 세계 최저 수준인 9%로 지정된 이후 2022년까지 동일하게 적용 중이다. 총 투자액 기준 1천만 유로 또는 3.3백만 유로(지역별 상이) 및 일정 수준의 평균 종업원 수 유지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신청이 가능하다.

2) 보조금(현금지원) 제도(Cash subsidy)

헝가리는 투자인센티브제도 중 보조금(현금지원)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보조금 제도는 EU 헌법을 근간으로 국내 사정에 맞게 마련되

었다. 보조금은 국가 예산으로만 지원되는 보조금과 EU 기금(EU Fund)으로 운영되는 보조금으로 나뉜다. 헝가리의 현금지원은 주로 자산투자(자산구입, 공사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R&D, 고용인의 훈련을 위한 용도에 주로 제공된다.

또한, VIP 현금지원제도가 있어 투자목적이 자산투자일 경우 총 투자액이 1천만 유로 또는 5백만 유로 이상일시 또는 지역 서비스센터 창출일 경우 특정 신규 일자리 수를 만족한다면 입지 지역에 따라 VIP 현금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투자 보조금 인센티브 신청은 영어 또는 헝가리어로 헝가리 투자청(HIPA)에 할 수 있으며 주로 자산투자(그린필드, 브라운필드, 공장 증설 등)와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여가 큰 투자에 주로 지원된다. 보조금 인센티브는 헝가리 관련 당국과 투자기업 간의 협상을 통해 정해지므로, 헝가리 투자청을 통해 질의하고 협상하는 단계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인센티브 제도 전반과 관련하여 2021-2027 EU 기금이 새로이 배정됨에 따라 EU집행위는 9월 중순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될 Regional Aid Map에 대해 최종 승인한 바 있다. 2022년부터 부다페스트를 제외한 전 지역이 인센티브 수혜 가능 지역으로 적용됐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인센티브 비율이 중간 규모의 기업이 투자할 경우 인센티브율이 최대 10% 증가하며 소규모 기업이 투자할 경우 최대 20%를 더 받게될 예정이다.

제한 및 금지(업종)

방산 관련 산업, 농지소유 관련 국가가 특수 지정한 지주회사를 제외하고는 외국계 소유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단, 외국인의 투자가 제한된 것은 아니나 헝가리 정부는 특정 산업에서 외국계 기업들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한다. 그 영역으로는 에너지 산업, 금융산업, 폐기물 처리 산업이 있다.

에너지 산업의 경우, 2012년부터 헝가리 정부는 에너지 국영 기업인 MVM의 에너지 업계에서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2013년, 2014년 헝가리의 전기료 인하 등을 추진하며 헝가리 시장의 외국계 에너지 기업들을 압박했다. 결과적으로 헝가리 에너지 국영기업 MVM은 2014년 가스공급기업 Fogaz를 독일 RWE로부터 사들여 에너지 산업 내 입지를 넓혀가고 있으며, 프랑스 에너지 기업인 GDF Suez는 헝가리 시장에서 철수했다. 2015년에는 국영 공공 에너지 제공기업인 ENKSz를 설립했다.

금융산업의 경우, 금융기관 및 보험사의 경우 헝가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법인 설립을 통지해야 한다. 외국계 금융기관은 지점운영이 가능하며 헝가리 영토 내에서 국경 간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헝가리 정부는 외국계 금융기업들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2015년에는 국내 브랜드의 업계 점유율이 50%를 넘었다. 헝가리 정부의 금융거래세 도입 등 금융산업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독일 소유였던 MKB 은행, GE가 소유했던 Budapest Bank 등은 매각됐다. 과거 오스트리아 은행인 Raiffeisen 은행과 이탈리아 은행 CIB의 헝가리 시장에서의 철수 고려 발표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영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산업의 경우, 2012년에 통과된 폐기물 처리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정부만이 폐기물 처리 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워터파이프라인과 폐수 그리드의 소유권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정부로 제한된다.

헝가리 정부는 지난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 과정상 Act LVIII of 2020에 의거 비상사태 종료 및 전염병 대응 태세가 발효되는 동안 금융서비스,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인프라 산업 및 전략적인 산업에 해당하는 헝가리 기업의 외국인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자 할 때 헝가리 혁신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다. 동 조치는 코로나19 3차 확산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로 인해 기존 6월 30일까지 유효가 아닌 2021년 연말까지 연장 발효되었다.

아울러, 철강, 석탄, 조선, 합성섬유, 운송, 에너지,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의 분야는 핵심 산업인 바 지역별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특별경제구역

헝가리는 2004년 EU에 가입하기 전에는 130개의 관세 면제 지역에서 143개의 회사가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EU 가입 이후 관세 면제 지역은 운영되고 있지 않다. 이에, 헝가리 경제부는 관세 면제 지역의 잠정 후보군을 선정하려고 하나 실질 수요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가능한 지역으로 Szekesfehervar, Győr, Kecskemet, Miskolc, Záhony 또는 Szombathely이 있다.

헝가리 정부는 지난 2020년 5월 Special Economic Zone의 명칭을 새로이 도입하여 삼성SDI가 소재하는 God 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는 과거 특별경제구역의 관세 면제 혜택과는 달리 지정된 지역에서 50억 포린트 또는 이상에 해당하는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경우 중앙 정부가 재빠른 투자 이행과 관련 인프라 개선을 도와주는 혜택을 제공하고자 위함이다. 또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의 세수입(tax revenue)은 지자체에서 중앙 정부로 이관된다. 동 조치는 2020년 6월 국회의 비준을 받으면서 통과되었으며 세수입이 대폭 감소하게 될 God 지자체에서는 도입 시점부터 정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연장선에서 헝가리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Ivancsa와 Rácalmas 지역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SK온이 제3공장을 Ivancsa에 건설 중인 바, 동반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에게도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헝가리 지역별 입지조건

헝가리는 크게 7개 지역으로 나뉜다. 크게 서부지역, 중부지역은 소득수준이 높고 산업생산이 활발하며, 남부,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고 산업생산량이 적다. 헝가리의 투자인센티브는 이러한 지역별 불균형을 반영해 서부·중부지역은 인센티브 비율이 작게, 남부·북부지역은 인센티브 비율이 높게 설정돼 있다.

산업단지

○ INPARK &RD

규모	41.7ha
임차료	투자규모 혹은 내용 등에 따라 상이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자: Benjmin Matesz○ 직책: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연락처: +36 70 651 6327○ 이메일: benjamin.matesz@inpark.hu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주요기업 : Drogerie Markt Logistics Center, Hensel Hungaria Kft, Fiege Kft. ○ 입주여건: 페스트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Erd에 위치하며 근방에 M0 도로를 통해 헝가리 전역 접근 가능하다. 또한, Liszt Ferenc 국제공항과 40분 거리에 인접하여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우수하다. ○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ximum buildability: 60%, 180,000 m2 - Maximum building height: 25 m - Minimum green area: 20%
-----------	--

○ INPARK HATVAN

규모	36.9ha
임차료	투자규모 혹은 내용 등에 따라 상이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Benjmin Matesz ○ 직책: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 연락처: +36 70 651 6327 ○ 이메일: benjamin.matesz@inpark.hu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주요기업 : LKH LEONI Kbelgyr Hungaria Kft., Johnson Electric Hungary Kft., Horvth Rudolf Intertransport Kft. ○ 입주여건: M3/E71 도로와 인접하며 Liszt Ferenc 국제공항과도 40분 남짓 거리로 지리적 접근성이 높다. ○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x. building coverage: 50%, 128,000 m2 - Max. building height: 15 m - Min. green area ratio: 25% - Max. regional government incentive: 50%

○ INPARK PÉCS

규모	50.1ha
임차료	투자규모 혹은 내용 등에 따라 상이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Benjmin Matesz ○ 직책: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 연락처: +36 70 651 6327 ○ 이메일: benjamin.matesz@inpark.hu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주요기업 : Honsa Kft., Matro Kft., Hauni Hungaria Gépgyrt Kft. ○ 입주여건: 남부 트랜스다뉴비아 지역의 중심 도시인 Pecs에 위치하며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상업, 경제, 교육 그리고 연구단지 소재지이다. M60 도로 및 Pecs-Pogany 공항과의 접근성이 좋아 지리적으로 우수한 곳에 위치해있다. ○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x. building coverage: 50%, 171,457 m2 - Max. building height: 20 m - Min. green area ratio: 25% - Max. regional government incentive: 50%

○ INPARK MISKOLC

규모	111.7ha
-----------	---------

임차료	투자규모 혹은 내용 등에 따라 상이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Benjmin Matesz ○ 직책: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 연락처: +36 70 651 6327 ○ 이메일: benjamin.matesz@inpark.hu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주요기업 : GS Yuasa Hungary Ltd., Robert Bosch Kft., Ross Mold Kft., TAKATA Safety Systems Hungary Kft. ○ 입주여건 : 북부 헝가리의 중심 도시 Miskolc에 위치하며 부다페스트, 슬로바키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 접근성이 높은 이유로 과거 부터 상업 및 대학이 크게 발전했다. M30/E79 도로가 근접하며 Debrecen 국제공항이 1시간 거리에 있다. ○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ximum buildability: 50%, 420,000 m2 - Maximum building height: 16 m - Minimum green area: 25%

<자료원 : INPARK(헝가리 정부 산하 산업단지 운영 비영리단체)>

주요 지역별 여건

○ 중앙 헝가리(Central Hungary)

- 인구수(2020년): 304.7만명
- 평균소득(2020년): 473,765 HUF
- 산업생산(2020년): 6,993,094백만 HUF
- 1인당GDP(2019년): 7,432,000 HUF
- 외투기업 수(2019년): 15,546개사
- R&D 기관 수(2019년): 1,760개 기관
- 실업률(2020년): 3%

○ 북부 헝가리(Northern Hungary)

- 주요 도시: Miskolc
- 인구수(2020년): 111.8만명
- 평균소득(2020년): 325,092 HUF
- 산업생산(2020년): 4,759,416백만 HUF
- 1인당GDP(2019년): 3,244,000 HUF
- 외투기업 수(2019년): 567개사
- R&D 기관 수(2019년): 236개 기관
- 실업률(2020년): 5%

○ 북부 대평야(Northern Great Plain)

- 주요 도시: Debrecen
- 인구수(2020년): 144.2만명
- 평균소득(2020년): 310,078 HUF
- 산업생산(2020년): 4,079,032백만 HUF
- 1인당GDP(2019년): 3,148,000 HUF
- 외투기업 수(2019년): 617개사
- R&D 기관 수(2019년): 346개 기관
- 실업률(2020년): 7%

○ 남부 대평야(Southern Great Plain)

- 주요 도시: Szeged
- 인구수(2020년): 123,1만명

- 평균소득(2020년): 329,090 HUF
- 산업생산(2020년): 3,920,557백만 HUF
- 1인당GDP(2019년): 3,534,000 HUF
- 외투기업 수(2019년): 754개사
- R&D 기관 수(2019년): 431개 기관
- 실업률(2020년): 5%

○ **남부 트랜스다뉴비아(Southern Transdanubia)**

- 주요 도시: Pecs
- 인구수(2020년): 87.4만명
- 평균소득(2020년): 340,212 HUF
- 산업생산(2020년): 1,729,327백만 HUF
- 1인당GDP(2019년): 3,351,000 HUF
- 외투기업 수(2019년): 648개사
- R&D 기관 수(2019년): 259개 기관
- 실업률(2020년): 5%

○ **서부 트랜스다뉴비아(Western Transdanubia)**

- 주요 도시: Győr
- 인구수(2020년): 99.4만명
- 평균소득(2020년): 383,983 HUF
- 산업생산(2020년): 6,234,059백만 HUF
- 1인당GDP(2019년): 4,726,000 HUF
- 외투기업 수(2019년): 1,923개사
- R&D 기관 수(2019년): 286개 기관
- 실업률(2020년): 2%

○ **중부 트랜스다뉴비아(Central Transdanubia)**

- 주요 도시: Szekesfehervar
- 인구수(2020년): 106.1만명
- 평균소득(2020년): 386,355HUF
- 산업생산(2020년): 6,380,530백만 HUF
- 1인당GDP(2019년): 4,476,000 HUF
- 외투기업 수(2019년): 1,122개사
- R&D 기관 수(2019년): 237개 기관
- 실업률(2020년): 3%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3514.89	6410.26	3884.07	4168.7	-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1220	3022.33	2848.24	4282.13	-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	100	43	888,963	119	739,552
2020	100	26	203,448	111	328,465
2021	90	26	857,718	91	847,25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60	25	829,748	68	692,01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	1	86	3	86
건설업	13	4	1,064	20	874
도매 및 소매업	2	1	21,000	6	10,118
운수 및 창고업	9	4	1,845	11	1,848
정보통신업	3	2	51	2	40
금융 및 보험업	1	0	34,074	1	33,930
부동산업	1	1	445	2	43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5	650	6	20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72	18	97,670	86	224,20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0	1,177	0	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	0	108	1	108
건설업	10	5	760	8	499
도매 및 소매업	8	3	56,920	10	56,945
운수 및 창고업	4	0	254	4	254
정보통신업	1	0	28	0	0
금융 및 보험업	1	0	44,000	1	44,453
부동산업	1	0	2,001	1	2,00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0	530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61	11	837,522	66	830,40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0	1	0	1	12
건설업	13	7	4,031	14	2,628
도매 및 소매업	4	3	12,375	4	11,293
운수 및 창고업	2	1	2,010	2	2,010
정보통신업	4	2	357	2	20
금융 및 보험업	1	0	434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1	962	2	88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	0	27	0	0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삼성전자

진출연도	1989
진출형태	생산/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삼성전자

○ 한국타이어

진출연도	2006
진출형태	생산/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타이어 제조
모기업명	한국타이어

○ KDB Europe

진출연도	1990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 보험업
취급분야	개인, 기업대출, L/C, 외국환 등
모기업명	KDB

○ 한온시스템즈

진출연도	199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공조
모기업명	한온시스템즈

○ LG전자

진출연도	199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업
취급분야	전자제품
모기업명	LG전자

○ 삼양사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화학품(합성수지)
모기업명	삼양사

○ 기아자동차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유통업
취급분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모기업명	기아자동차

○ 삼성SDI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기차용 배터리 셀
모기업명	삼성SDI

○ SK이노베이션

진출연도	2017
------	------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전기차용 배터리 셀
모기업명	SK이노베이션

○ 롯데알미늄

진출연도	202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알루미늄 박
모기업명	롯데알미늄

○ 신한은행

진출연도	2021
진출형태	연락사무소/지점
업종	금융보험업
취급분야	금융여신
모기업명	신한은행

○ 우리은행

진출연도	2021
진출형태	연락사무소/지점
업종	금융보험업
취급분야	금융여신
모기업명	우리은행

<자료원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헝가리에서 법인의 경우 무한책임파트너십, 유한책임파트너십,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크게 4가지 형태를 띤다. 1명으로 설립이 가능한 형태는 유한회사(Kft.), 주식회사(Rt.) 등이며, 상대적으로 최소자본금이 상대적으로 작은 유한회사(Kft.)가 일반적인 투자진출형태로 많이 선택되고 있다.

헝가리에서 법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인 등록청(Court of Registration)에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필수 구비서류는 공인 변호사에 의해 작성 후 부서(Countersign) 되어야 한다. 필수 구비서류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등록청은 서류를 수령한 뒤, 회사명, 주소, Tax, 통계번호, 법인등록 참고번호가 포함된 확인증을 발급해준다. 확인증을 발급받은 법인은 'Pre-Company' 형태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법인은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은행과 같이 공식 자격이 요구되는 경영 활동은 제한된다. 지사도 영업활동을 하는 주체로 간주해 법인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 변호사 고용: 현지 공인 변호사 없이 법인 설립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고용부터 시작한다. 비용은 양자 간 협의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회사규모나 변호사의 역할에 따라서 달라진다. 유한회사(Kft.) 단순 등록은 최소 5만 포린트에서 10만 포린트 정도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정관의 공증 및 투자의향서 작성 및 공증: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에 발기인들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설립의향서(Deed of Foundation)를 작성하고 공증이 필요하다. 설립의향서는 공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등록신청서를 해당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 계좌 개설: 헝가리에서 법인 이름으로 계좌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 유로 또는 포린트 계좌 개설에는 약 하루가 걸리며, 비용은 은행별로 다르다. 은행 계좌 개설 시에 헝가리 포린트화 계좌와 유로화 계좌를 연동해서 개설이 가능하며, 카드결제 시 한쪽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다면 다른 통화 계좌에서 지출된다. 한편, 유로화 계좌의 경우 송금 시 수수료가 매우 높은 편이다.

- 법인등기: 헝가리 등기법에 따르면, 정관에 서명한 지 30일 이내에 법인등록청(Court of registration)에 등록돼야 한다. 2008년 6월 30일부터 법인등록 절차는 전면 자동화됐다. 이때, 간소화 전자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표준 전자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법인등록청에 전자 등록하는 절차는 변호사에 의해 행해져야 한다. 간소화 전자서류 제출의 경우 법인 등기에는 1일이 소요되는 반면 표준 전자서류는 15일 정도 소요된다. 승인 후 자동으로 헝가리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일반적으로 헝가리 기업들은 회사공보(Company Gazette, Cegkozlony)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등록비용: 법인 등록 시 비용은 단 1회만 지불하면 된다. 법인 형태와 전자서류 제출 방식에 따라 등록비가 상이하다. 비공개회사(Zrt.)는 간소화 전자서류 제출 시 5만 포린트, 표준 전자서류 제출 시 10만 포린트를 납부해야한다. 지사나 연락사무소의 경우, 제출방식은 별개로 5만 포린트를 납부해야한다. 이외 법인형태에 대해서는 등록비용이 면제된다. 또한, 홍보비(Publication fee)를 납부해야하는데 비공개회사만이 표준 전자서류 제출 방식을 선택할 경우 5천 포린트를 납부해야하며 나머지 법인 형태는 홍보비가 면제된다. 다만, 법인 정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헝가리는 기업정보 일부에만 수정이 가해져도 추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 비용으로 1만 5,000포린트 또는 5만 포린트가 소요되며 공시비용 3천 포린트도 추가로 든다. 만약 기업 소재지가 변경된다면 회사 형태에 따라 1만 2,000포린트 또는 2만 포린트 또는 4만 포린트를 추가로 내야 한다.

- 추가등록: 신규 법인은 등록청 외에도 반드시 시 정부, 세관, 통계청, 사회보장국 등에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추가등록에 드는 비용은 무료이다.

지사

외국 기업의 지점(Branch office)은 헝가리 투자 현지기업과는 달리,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것이 아니고 모기업의 하부적인 단위체로서 모기업이 적용받는 법률 내에서 활동할 수 있으나, 일부는 헝가리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들 지점은 헝가리 내국 법인체와 계약을 하므로 기업법원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고, 등록 시 모기업의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점 형태로 투자 시에도 현지 인보이스 발급이 가능하다. 보통 유럽계 보험회사들이 지점형태로 투자를 많이 한다. 간혹 프로젝트 공사를 위해 지점 형태로 설립을 검토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기업은 유한회사(Kft.) 형태로 법인을 설립 중이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는 모회사를 대변하여 계약 협상 지원, 마케팅 등 홍보의 통상적인 연락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윤 발생 행위를 할 수 없다. 해당 형태는 진출기업이 실제 투자를 진행하기 이전 현지 비즈니스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선호된다. 세금은 자산 처분 시 이익에 대한 양도세를 지불해야 된다. 설립절차는 법인 설립절차와 동일하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p>1) 투자위험도 헝가리는 2010년 이후 국민 보수당인 Fidesz가 집권하면서 정치 및 경제 안정화를 특정 산업에 대한 세금 부과, 임의의 법률 제정 등 중앙집권화된 권력 활용으로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혼란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에 투입된 정부 재정은 헝가리의 GDP 대비 부채비율을 2021년 2분기 77.6%까지 끌어올렸으며 과도한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고자 세 차례 인상된 기준금리는 헝가리 통화의 가치를 상승시켜 수출 의존적인 헝가리의 경쟁력이 일부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헝가리는 여전히 EU회원국으로서 포괄적인 EU 규정을 준수하며 최근 유로화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투자위험도는 낮다고 평가 받고 있다.</p> <p>2) 투자진출형태별 애로사항 ○ 법인: 헝가리 정부는 법인 설립에 대해 정부로부터의 승인을 요구하는 업종(금융, 에너지 등)이 있다. 이를 제외한 업종에 대해서는 큰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고등교육기관 또는 에너지/수송/통신 및 EU Regulation 2019/452에 명시된 세부 업종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와 보다 엄격한 승인이 요구되고 있다. 추가로 법인 등록 이후 회사를 특정 지역에 설립하고자 하는데 해당 부지의 목적이 농업용으로 분류되어 있다면 외국인은 토지를 구매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 지사: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지만 법인과는 다르게 외국 법인의 모회사가 손해에 대해 100% 책임이 부과된다. 지점은 개별 회사 형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인과 유사하게 과세 대상이며 법인세, 지방세 및 법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연락사무소: 지사와 동일하게 외국 법인의 해외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한다. 외국 법인의 모회사가 손해에 대해 100% 책임이 부과된다. 연락사무소는 그 어떠한 계약서에 사명할 수 없으며 특히 모회사의 권리를 위임 받아 서명할 수 없다. 연락사무소가 수행할 수 있는 분야는 세 가지로 한정되며 이는 홍보, 계약 중계 그리고 계약 서명 지원이다. 지사와 다르게 별도의 법인이 아닌 관계로 법인세나 지방세를 내지 않는다.</p> <p>3) 분쟁해결 현재 헝가리에는 대형투자에 관한 전담 애로상담 창구가 없으나 헝가리 투자청(HIPA)에서 외국인의 헝가리 투자 관련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분쟁 또는 중재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HIPA(Hungary Investment Promotion Agency)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볼 수 있다. 연락처는 +36-1-872-6520/info@hipa.hu이다. 또한, 헝가리 상공회의소(Hungar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내 Court of Arbitration이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p>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우리가 흔히 지칭하는 주식회사의 형태이다. 각 주당 액면가가 존재하며 각 주주는 각자 지분만큼의 책임만을 진다. 주주들은 지분만큼의

배당, 의결 등의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시장 공개 여부에 따라 비공개회사와 공개회사로 나뉜다.

- 비공개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by Shares)
 - 현지어: Zrtkren mkd részvénytrsasg(약어: Zrt.)
 - 법정자본금: 500만 포린트 이상
 - 발기인: 1인 이상
 - 공공의 주식참여 제한
- 공개회사(Public Limited Company by Shares)
 - 현지어: Nyilvnosan mkd részvénytrsasg(약어: Nyrt.)
 - 법정자본금: 2,000만 포린트 이상
 - 발기인: 2인 이상
 - 공공의 주식참여 허용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현지어: Korltoolt Felelsség Trsasg(약어: Kft.)
 - 법정자본금: 300만 포린트
 - 발기인: 1인 이상
 - 진출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법인 형태이며 증권 발행 제한
-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 합자회사이라고도 함)
 - 현지어: Betéti trsasg(약어: Bt.)
 - 법정자본금: 없음
 - 발기인: 2인 이상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조직.
 - 법인 설립 시 법정자본금의 하한선이 없으므로, 최소 법정자본금이 없는 조직에 추천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현지어 : egyéni cég (ec.)
 - 법정자본금: 없음.
 - 발기인: 1인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PwC Hungary

전화번호	+36 1 461 9100
주소	Budapest, Bajcsy-Zsilinszky ´t 78, 1055
홈페이지	https://www.pwc.com/hu/en.html

이메일	info@hu.pwc.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러시아에 헝가리 관할 회계사 존재함.

◦ Deloitte Hungary

전화번호	+36 1 428 6800
주소	Budapest, D´zsá György ´t 84/C, 1068
홈페이지	https://www2.deloitte.com/hu/en.html
이메일	deloitteinhungary@deloittece.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 BDO International Hungary

전화번호	+36 1 235 3010
주소	Budapest, K´r u. 2/A, 1103
홈페이지	https://www.bdo.hu/en-gb/home
이메일	office@bdo.hu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 ANDREKO KINTELLAR

전화번호	+36 1 428 4400
주소	Budapest, Sz´chenyi rkp. 3, 1054
홈페이지	https://www.kinstellar.com/
이메일	budapest@kinstellar.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 KPMG

전화번호	+36-1-887-7100
주소	Budapest, V´ci ´t 31, 1134
홈페이지	https://home.kpmg.com/hu/
이메일	budapest@kinstellar.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	---

○ FGN/IIP Hungary

전화번호	+36-1-887-7100
주소	Budapest, Rakoczi ut 1-3., 1088
이메일	budapest@kinstellar.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한국인 고문 있음(연락처: danielyu.atech@gmail.com, +36-30-659-1543)

○ Noerr

전화번호	+36-1-224-0900
주소	Budapest, F u. 14, 1011
홈페이지	https://www.noerr.com
이메일	info@noerr.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한국인 고문 있음 (루마니아 상주)

○ E&Y

전화번호	+36-1-451-8100
주소	Budapest, V´ci út 20, 1132
홈페이지	http://www.ey.com/hu
이메일	info@noerr.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한국인 담당자 있음 (폴란드 상주, So.Jeong.Park@pl.ey.com)

○ Deloitte Slovensko

전화번호	+421258249500
이메일	hanearlko@deloittece.com

○ Lakatos, Köves and Partners

전화번호	+36-1-429-1300
주소	Budapest, Mad´ch Imre út 14., 1075
홈페이지	http://www.lakatoskoves.hu/
이메일	info@lakatoskoves.hu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 KIM & Europe Ltd

전화번호	+36-70-413-5251
주소	Budapest , Dorottya utca 9 1051
홈페이지	https://www.kimandeurope.com/
이메일	sales@kimsoft.at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한국인 컨설턴트 있음

○ CEE Lawyers

전화번호	+36-1-461-1050
주소	H-1062 Budapest, Andr´ssy út 113.
홈페이지	http://www.cee-lawyers.com
이메일	sales@kimsoft.at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무
비고	kozeshnik@cee-lawyer.com

<자료원 : 부다페스트 무역관 자체, 각 회사 담당자>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EU 회원국임에도 아직 포린트화를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대내외적으로 유로화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헝가리 내각은 2001년 6월 15일 외환제도 전면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신 외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EU 지침에 따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고 내국인은 해외에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해졌고 헝가리 거주 외국인도 현지화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한편, 2008년 2월 26일 헝가리 중앙은행(MNB)은 기존 2003년 6월부터 유로화 기준환율을 상하 15% 내에서 유지해 온 기존의 제한적 변동환율제도(Forint FX band)에서 '상하 15% 밴드'를 폐지하고 자유변동환율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헝가리 포린트화 환율은 유로 환율과도 상당히 연동되어있는데, 유로화 약세 정책에 힘입어 포린트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3차 확산이 진행되었던 시기에는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환율 변동성이 높았다.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경제성장에 인플레이션이 맞물리며 2021년 중앙은행은 금리를 7차례에 걸쳐 인상하며 포린트화의 약세를 방어하려 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변동성이 더욱 커졌고 유로화 대비 포린트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외환 규제

1) 과실송금

현지 외투기업의 영업이익 등 과실송금은 특별한 규제가 없다. 또한, 과실송금뿐 아니라 이익, 용자 서비스, 자본 등 자금의 유입, 반출에 제한이 없다.

2) 자금조달

외국인투자기업이 현지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방법으로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있으나 기업의 신용규모(매출액, 거래실적 등), 기간, 담보 여부에 따라 대출이자가 매우 큰 폭으로 차이가 나고 있다.

기업에 따라 담보대출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택 70%, 공장부지 50%까지도 가능하다. 담보가액 감정은 은행별로 감정기관을 통해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실적 및 신용도 문제로 신용대출은 까다로운 편으로 담보대출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Libor(스위스프랑, 유로, 달러 기준 각 별도금리)+스프레드(은행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헝가리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은 KDB Europe이 있다. KDB Europe은 중동부 유럽에 진출한 유일한 한국계 은행 현지법인이다. 폴란드에 우리은행, 신한은행, 체코에 외환은행 등이 있으나 사무소 형태로 진출해 있다. 이 외에는 헝가리 내 진출한 UniCredit, OTP Bank, K&H Bank, Erste Bank 등 외국계 은행들이 다수 있다. 헝가리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은 KDB나 유럽 내 소재한 한국계 은행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헝가리에 진출한 우리 기업 중 일부는 현지 은행을 통한 일부를 자금 조달 중이며, 금리는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및 유리보(Euribor)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리보는 영국의 리보에 맞서서 유로화를 사용하는 12개국 이 모여 1999년 만든 금리로 'Euro Interbank Offered Rate'의 줄임말이며 2003년부터 새로운 유로 표시 기준 금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또한, 헝가리 투자 자금조달을 위해 헝가리 수출입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다(www.exim.hu).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USD=332.27HUF ('22.4.1./MNB)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379.54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803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3.46
비고	헝가리의 사무직 월 458,381포린트, 생산직 월 355,101 기준 헝가리는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상이하다. 2022. 1. 기준, 숙련노동자의 월별 최저임금은 260,000포린트이며 비숙련노동자는 100,000포린트이다. 일반 최저임금은 200,000포린트로 시간당 약 1,150포린트이다.				

<자료원 : 헝가리 통계청(KSH), 헝가리 중앙은행(MNB)>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고용계약은 서면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피고용자만이 무효화시킬 수 있다. 고용 계약서상 기본 급여와 직책은 필수로 명시해야 한다. 만약 고용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무기간 고용(indefinite term employment)으로 간주된다. 노동장소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피고용자가 통상적으로 일하는 곳이 노동장소가 된다.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고용계약서 체결 후 15일 이내에 아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1일 정규 근로 시간
- 기본급여 및 여타 보수 구성 요소들
- 급여산출 방식, 임금지급 일자, 주기
- 주어진 직책에서의 피고용자 임무 및 의무 사항
- 유급 연가 일수, 휴가를 분배하고 결정해주는 절차
-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준수해야 할 통보 기간 관련 규정
- 고용주의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는 사람
- 단체 협약(Collective agreement)이 피고용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지역 노동조합 지부 명칭 및 노동위원회 존치 여부(중앙 노동 위원회 등)

고용계약의 효력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은 피고용자가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발효된다. 고용 계약서상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근로개시일은 고용계약 체결일의 익일이 된다.

근로시간

헝가리 노동법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다.

휴가

- 1) 기본 연차 (연령별 차등)

피고용자에게는 매년 연차 기본 유급휴가와 추가가산 휴가가 부여되는데, 기본 유급휴가는 20일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가산 휴가가 부가된다.

- 피고용자가 25세 미만인 경우 20일
- 피고용자가 25세 이상인 경우 21일
- 피고용자가 28세 이상인 경우 22일
- 피고용자가 31세 이상인 경우 23일
- 피고용자가 33세 이상인 경우 24일
- 피고용자가 35세 이상인 경우 25일
- 피고용자가 37세 이상인 경우 26일
- 피고용자가 39세 이상인 경우 27일
- 피고용자가 41세 이상인 경우 28일
- 피고용자가 43세 이상인 경우 29일
- 피고용자가 45세 이상인 경우 30일

2) 병가(제61조)

병가는 재해 및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 그 치료를 위한 유급휴가를 의미하는데, 피고용자는 1년간 15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병가 사용 시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작업장이나 근무 중의 사고로 인한 질병, 혹은 임신에 따른 근무불능은 병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병가시에는 70%의 임금을 지급한다. 피고용자의 요청이 있을 시, 출산휴가 만료 후 자녀의 나이가 3살일 때까지는 고용주는 무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출산휴가(제62조)

출산휴가 기간은 근무의 연속으로 인정된다. 임신 중의 여성과 출산 후 여성근로자는 보통 출산일 4주 전부터 24주의 출산 휴가를 가진다.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각각 15일, 6주의 휴가를 가게 되며, 조산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영아 퇴원 후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4) 기타 무급휴가(제 62조 130항~133항)

하기와 같은 경우 피고용자의 요청이 있을 시, 고용주는 무급휴가를 부여해야 함.

- 10세 이하 자녀의 질병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가까운 친인척의 장기 간병 (30일 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 필요한 경우 최대 2년
 - 친인척이란 남편 및 아내/ 피고용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비속/ 입양, 의붓 또는 수양자녀/ 양부모, 의붓 또는 수양부모/ 형제자매/ 동거인을 의미함
 - 장기간병과 그 사유는 환자 주치의가 개인적으로 입증
- 자발적인 군 복무 기간: 군 복무에 의한 무급휴가를 제외하고, 피고용자는 휴가 개시 15일 전에 서면으로 고용주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휴가종료일을 명시해야 함

해고

고용계약의 종료에는 상호 합의/통보/즉시 계약해지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상호 합의하에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사후 리스크가 가장 적

다. 견습직의 경우 사유 없이 즉시 해고 가능하다. 고용주의 통보에 의한 해지(해고)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 혹은 피고용자의 실적 또는 행태(근무 태만 등) 등 적절한 사유가 필요하다. 하지만 근무 태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고용 관계 종료 고지 전, 고용주는 피고용자에게 항변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법정 통보 기간은 최소 30일이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아래와 같이 근속연수에 따라 고지 기간이 차등 적용 된다.

최소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소 1개월분 임금 지급하며, 나이에 따라 퇴직금은 증가한다. 단, 계약해지 사유가 실적 혹은 피고용자 행위에 기인할 경우 수당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즉시 통보에 의한 해고(제42조) 역시 타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총체적으로 상습적 또는 의도적인 근무 태만에 의해 대상자가 기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 즉시 해고 효과가 발생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다. 일반적인 경우 15일 이내로 해고하며,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계약직 고용계약 해지를 위한 특별 규정: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용자가 통보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용주는 회사가 (a) 파산했을 경우 (b) 피고용자 기술 부족의 경우 (c)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지는 않으나 계약 고용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통보에 의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고용주는 즉시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최대 1년 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부당한 고용관계 종료의 법적 결과(제44조):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 고용관계의 종료가 부당했을 경우, 피고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원칙으로 복귀되어야 하며, 부당한 해고로 인해 피고용자가 입은 손해액(12개월 치 부재중 임금 초과할 수 없음)과 임금(기타 수당), 퇴직금을 배상해주어야 한다.

퇴직금

1) 퇴직금, 수당 등 의무지급 보상금(제 41조)

피고용자의 근로관계가 고용주의 통상고지 또는 법적 승계자 없이 고용주의 청산에 의해 종료된 경우 피고용자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만약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다른 연금에 대한 권리(퇴직연금 또는 명예 퇴직금)가 발생할 때는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퇴직금은 일정 근속연수에 따라 월 보수로 지급된다. 하지만 근로자가 이직 등 자발적으로 퇴사를 희망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퇴직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최소 3년 근로 1개월 임금
- 최소 5년 근로 2개월 임금
- 최소 10년 근로 3개월 임금
- 최소 15년 근로 4개월 임금
- 최소 20년 근로 5개월 임금
- 최소 25년 근로 6개월 임금

기타

헝가리는 전 인구의 60~70% 정도가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족이 근면하고 우수해 노동력의 질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고급 기술을 보유한 헝가리인을 고용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실정이다. 임금 수준이 낮은 국영기업의 임원들은 직장 이전이 잦고, 장기 결근을 하는 경향이 있어 합작 투자 시 고용계약을 하는 경우, 명백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서방 투자기업의 경영 기법이 도입되어 비효율적인 작업 체계 등은 사라지고 있으나, 헝가리의 노동 생산성은 오스트리아 등에 비해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동부 유럽에서는 노동 인력 수준이 가장 높고 서구화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헝가리의 사회보장세는 의료보험(Health care contribution), 실업수당(Vocational training fund), 연금(Pension fund), 소득세(Personal income tax)로 구성되며, 이들의 총합은 세금 공제 전 급여의 33.5% 수준으로 피고용인 부담이다.

헝가리의 의료보험(Health care contribution)은 세금 공제 전 급여의 7%이다. 의료보험은 Health care contribution for in kind fund 4%, Health care contribution for financial allowance fund 3%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보험

헝가리의 실업수당(Vocational training fund)은 세금 공제 전 급여의 1.5%이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산재보험

헝가리에는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의 개념이 없다.

국민연금

헝가리의 연금(Pension fund)은 세금 공제 전 급여의 10%이다.

소득세

헝가리의 소득세(Personal income tax)는 세금 공제 전 급여의 15%로, 한국과 같은 소득 구간에 따른 차이는 없다. 외국인 및 노년층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기 의료보험, 실업수당, 연금을 제외한 15%의 소득세만 납부한다.

고용주세

헝가리에서 고용주 측은 노동자 고용에 따른 사회기여세(Social Contribution Tax), 일명 고용주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노동자의 세금 공제 전 급여의 15.5% 수준이다. 고용주세는 2017년 1월 1일부로 종전 27%에서 22%로 하향되었고 이 추세는 2018년에는 19.5%, 2019년 7월 17.5%로 지속 이어졌으며 2020년 7월 1일부로 15.5%로 추가 조정되었다.

헝가리 정부의 고용주세 인하 조치는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주세 인하에 대한 여력을 급여인상으로 전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2017년 1월 1일부터 헝가리 법인세율은 9%로 인하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종전 이익의 5억 포린트까지는 10%, 초과분에 대해서는 19% 지급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인하이며, 이는 헝가리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모멘텀 지속을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헝가리에 기투자 진출한 기업의 경우 종전 투자 인센티브의 하나로 법인세가 감면되던 걸 생각하면, 예상보다 그 실효는 적을 수 있다고 한다.

삼중과세표준 면제(The Triple Tax Base Benefit)는 주 및 중앙정부에 소속된 연구기관이 승인한 협약하에 R&D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삼중과세표준 공제 또는 면제 대상이 된다.

피지배 외국 법인(CFC; Controlled Foreign Company)이란 1) 내국인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자본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세후 이익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받을 자격이 있고 동시에 2) 과세연도에 법인이 해외에 납부한 법인액이 모회사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작을 경우를 뜻한다. 단, 상기 외국 법인들이 EU, OECD 또는 헝가리와 세금 협정을 맺은 국가의 외국 법인일 시에는 제한다.

헝가리 조세법에 의하면, 피지배 외국 법인(CFC)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법인이 CFC로부터 수익을 얻었을 시에는 통상적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종류의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일반법인이 통상 감세가 되는 지출이더라도, 지출처가 CFC일 시에는 감세효과가 없을 수 있다. 또한, CFC의 내국인 지분보유자(shareholder)의 미처분유보이익(undistributed profit)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세금공제 혜택(Growth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하며, 매년 세전 수익이 5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헝가리의 개인소득세는 2012년에 누진세(최대 32%)에서 단일세율(16%)로 개정되었으며, 2021년 현재는 2016년 1월부터 인하된 15%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사회기여세는 18.5%이다.

가족수당(Family Allowance)은 2012년 세법개정으로 많은 소득공제 사항들이 사라지면서 중요한 수당으로 자리 잡게 됐다. 단, 헝가리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가족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과세소득이 연소득의 7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타국에서 비슷한 규모의 가족수당을 수령하고 있지 말아야 한다. 2019년부터 가족수당이 상향되었으며 자녀 1명은 66,670 HUF, 자녀 2명은 133,330 HUF, 자녀 3인 이상인 경우 220,000 HUF를 월별 공제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부터는 최소 자녀 4명을 양육 중일 경우 특정 조건 하에 개인소득세의 일부 항목이 완전 면제되기도 한다. 참고로 가족수당과 개인소득세와 연관되어 헝가리 정부는 2021년 경제 성장률이 5.5%를 초과할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2022년 2월에 2021년 개인소득세 납부분을 환급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목표 달성이 확실시됨에 따라 약 6천억 포린트(16억 유로)의 재원이 1.9백만 가정에 환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헝가리 정부는 25세 미만의 근로자를 취약계층으로 분류했으며 평균 세전급여보다 적게 수령할 경우 소득세 15%를 2022년 1월부터 면제할 정책을 내놓았으며 지난 4월 국회 비준을 받아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헝가리의 부가가치세율은 27%로 EU 안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비세그라드 4개국(V4) 표준세율 비교: 폴란드 23%, 체코 21%, 슬로바키아 20%), 지난 2012년 25%에서 2%가 올랐다. 일부 품목에 해당하는 할인율(Reduced rates)은 18%, 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축산제품에 대해 최저세율인 5%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2017년부터는 헝가리 낙농업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닭고기, 우유, 계란 등 품목에 대해서 추가로 최저세율 5%를 적용하고 있으며, 2018년에도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한 바 있다.

2013년에는 영수증상 필수 기재항목이 통일됐다. 전자영수증을 포함해 영수증상 필수 기재항목이 통일됐으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면세판매, 특정 과세상품의 경우 관련법에서 정하는 항목들이 영수증에 필히 기재돼야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2백만 포린트를 초과할 경우 영수증상에 판매자의 세금번호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Reverse Charge of VAT)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용역공급자를 대리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2013년 4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가 헝가리 수입 생, 냉동 돼지고기 및 특정 동물 사료에도 적용된다. 세금 환급은 헝가리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납세자는 세금 환급 기간 내 최소 1회, 연내 최대 5회까지 세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농업종사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1) 농업 생산자/구매자의 세금번호 2) 농산물 판매일 3) 농산물 무게 및 수량 4) 과세표준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항목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다.

- 27%: 표준세율이며 대부분의 물품이나 서비스에 적용
- 18%: 감면세율로서 우유 및 베이커리 제품, 호텔 및 기타 숙박서비스 등에 한정해 적용
- 5%: 최저세율로서 책, 일간지, 일부 의약품 및 중앙난방서비스 등에 한정해 적용

특별소비세

헝가리는 일부 식료품에 비만세 성격의 특별소비세를 2011년에 도입을 시작으로 설탕, 소금, 카페인 등을 함유한 제품에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해나갔으며 2019년 1월 1일 부 모든 술(alcoholic beverages)까지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 Salty Snacks : 300포린트/kg(염분 함유량이 1g/100g 초과일 경우)
- Salt Condiments(조미료) : 300포린트/kg(염분 함유량이 5g/100g 초과일 경우)
- Sweetened cocoa powder : 85포린트/kg
- Pre-packaged sweetened product : 160포린트/kg(설탕 함유량이 25g/100g 초과할 경우)
- Sugar sweetened beverages : 15포린트/L(설탕 함유량이 8g/100mL 초과할 경우)
- Energy Drinks : 300포린트/L(타우린 함유량이 100mg/100mL 또는 카페인 1mg/100mL 초과할 경우)
- Alcoholic drinks : 25-1,100포린트/L

기타

1) 금융거래세

헝가리는 유럽 내에서 가장 높은 은행세를 운영 중이었으나 2019년 1월 부 0.21%에서 0.2% 0.01%p 하향되었으며 2013년부터 계좌이체, 부채상환, 커미션, 수수료 납부, 신용카드 출금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 행위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한다. 현금지급결제는 0.6%, 계좌송금은 0.3%가 과세(거래당 최대 6,000 포린트 상한)한다. 공동소유 계좌 및 특정 목적을 위해 개설된 계좌(연금계좌, 장기투자계좌)를 통한 주택분양금(in Housing Payment) 납부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2) 기타 과세항목

- o 지방세: 최대 2%(과세표준은 총 이익금에 해당되며 지역별로 상이함)
 - (최신동향) 2021년 부 코로나19 피해에 따라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매출액(sales revenue)이 40억 포린트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고용인원수가 50명 이하일 경우 1%로 하향조정 실시

○ 혁신기여세: 0.3% (과세표준은 총 이익금)

3) 외국인 투자가 적용세율

헝가리는 외국투자 기업과 국내 기업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세제도가 없다. 외투기업에도 일반 법인세가 적용되며, 외투 기업 투자자에게도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4) 고용주세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기여세는 13%이다.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헝가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지리적 표시, 식물 품종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모두 각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별개의 법률에서 이를 보호하고 있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되고 특허받을 수 없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이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장 불가하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권은 형식심사만 진행하며 출원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권은 신규성이 있고 독창성이 인정된 선, 윤곽, 모양, 색상, 질감 또는 재료의 특징 또는 그 장식에 기인하는 제품의 전체 또는 일부의 외관에 대해 인정되고, 보호기간은 5년이나 최대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헝가리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10년간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이 완료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헝가리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9. 청산 및 철수

청산 및 철수

헝가리에서 투자법인의 정리는 1) 법인승계자(Successor)가 없는 청산과 2) 승계자가 있는 철수로 나뉘어있다.

1) 법인 청산 및 절차

법적 승계자가 없는 법인 정리의 경우, 1) 법인 정관과 관련된 기한 만료 시, 2)법인 설립자와 구성원이 청산을 결정했을 때, 3)본사에서 철수를 결정했을 때(Voluntary Winding-Up 또는 Liquidation), 4) 유한회사(Kft.) 또는 주식회사(Zrt., Nyrt.) 형태의 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1명밖에 남지 않았을 때 5) 회사법(Company Act.)에서 정한 사유로 법원에서 청산 명령을 내렸을 때 등 헝가리 법원은 법인이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급불능으로 판단하고 Bankruptcy Act를 발동해 법인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자발적 및 강제적 청산의 경우로도 나눠 비교해 볼 수도 있는데, 자발적 청산은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이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 회사를 폐쇄하기로 한 경우이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이다. 강제적 청산은 법인이 미결제 채무를 지불 할 수 없어 청산 절차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이다.

기한 20일 이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단, 의무가 적법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채무법인이 최종적으로 산정된 채무를 정해진 기한 내 지불하지 못할 때, 채무법인에 행해진 법적 조치들이 실패했을 때, 파산절차 중 결정된 협약에 대한 의무가 지켜지지 않을 때 등의 경우, 헝가리 법원은 법인 청산 명령을 내리며 동시에 청산 절차를 맡을 대리인(insolvency administrator)을 지정한다. 청산 명령은 회사공보(<http://www.cegkozlony.hu/>)에 실리게 된다. 이후 채권단은 해당 법인의 청산 여부가 공개된 때로부터 40일 이내에 대리인에 '대금청구내역(Claim Report)'을 보고하도록 한다. Bankruptcy Act.에 따라서 채권단의 권리가 보장되게 되는데, 만약 채권단이 40일 이내에 '대금청구내역'을 보고하지 못했다면 추가 180일이 주어진다. 단, 제공된 기간이 모두 지나면 대금 청구 권리는 소멸된다. 청산 절차 동안 모든 채무는 정산되어야 하며 동 절차는 최소 4-6개월에서 최대 24개월이며 청산 절차가 문제없이 마무리되면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다.

(※ 청산 및 법인전환 법령 : Act XLIX of 1991 on Bankruptcy and Liquidation Procedures에 의해 규정)

2) 법인철수 및 절차

법적 승계자가 있는 상태에서 회사를 정리하는 경우는 아래 3가지로 나뉜다.

- 법인전환(Transformation) : 법인형태 전환 가능(예 : Kft.가 Bt.로 재등록 가능하며 반대의 경우도 가능)
- 합병(Merger)
- 회사분할(Demerger)

법적 승계자는 별도의 신규 등록절차 없이 그대로 비즈니스 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전 법인이 가졌던 권리와 의무는 승계자에게 그대로 넘어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회사분할이 발생할 경우, '분할계약서'를 마련해 권리와 의무를 구분 지어 후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 합병 및 회사분할 관련 법령 : Act CLXXVI of 2013 on the transformation, merger and demerger of certain legal persons에 의해 규정)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특성

소비인구

헝가리의 인구는 약 969만명(2022년 5월 기준)이다. OECD에 따르면 헝가리의 생산가능인구는 천천히 줄어드는 추세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이는 출산율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헝가리는 코로나19 확산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 소득 불평등이 낮고 실업률이 4.1%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의 잠재력 있는 내수시장의 모습을 보였다. 1인당 GDP(PPP기준)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임금성장을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는 등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2020년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인구 전반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다. 그 결과, 헝가리 국민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식료품 등 필수재를 제외한 소비를 대폭 축소했으며 정부의 영업제한조치로 요식업계와 숙박업계가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자 헝가리 정부는 EU집행위의 공동 백신 조달 계획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자체 외교력을 동원하여 동방 국가의 백신도 도입하여 신속히 국민 대상 접종을 시행했다. 2022년 6월 기준, 인구의 약 63%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조치 및 입국규제는 전부 철회된 상황이다. 여름휴가 시기와 맞물려 요식업 및 숙박업이 일부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22년 최저임금이 전년동기 대비 19.76% 상승해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2022년 9월 기준 물가상승률이 20%를 초과해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더불어, 헝가리 화폐인 포린트화의 가치가 외화 대비 지속 하락하며 역사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자료원 : 헝가리 통계청 및 OECD>

소비 성향

헝가리 소비자는 기존에 자주 찾던 구입처에서 같은 제품을 구입하는 안전소비형 집단이 매우 높은 구조로 전체 소비자 중 29%에 달한다. 그러나 장기 경제불황으로 주춤했던 이미 서유럽에서 붐을 이루고 있는 PB, 소셜커머스, 인터넷쇼핑과 같은 신소비 패턴이 이제서야 헝가리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다.

최근 헝가리 경제성장, 실업률 감소, 최저임금 상승,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은 소비에서 있어 '가격' 대비 품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소비 패턴으로 일반브랜드에 비해 30~50% 저렴한 PB 먹거리 구매 비중이 크게 늘었다. 헝가리에는 글로벌 소매체인인 Tesco, Spar, Coop, Auchan과 토종 체인인 CBA가 경쟁적으로 PB 제품을 홍보 중이다. 또한, 저가 마케팅을 진행하는 독일계 소매유통점인 알디(Aldi)와 리들(LiDL)이 헝가리에서 점차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매장에 방문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성향이 지배적이었다. 일례로 헝가리 통계청이 지난 2016년 실시한 인터넷 구매 패턴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온라인 결제수단 부재 24%, 제품 수령 및 배송시간 조정 어려움 23%, 온라인 구매를 위한 PC 부재 22% 등의 사유로 온라인 구매를 꺼리는 응답자 수가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야기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활동의 증가는 이미 모바일 보급률이 약 80%에 육박하는 헝가리 시장에 재빠른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유도했으며 그 결과 2020년에 온라인을 통한 쇼핑이 상당수 증가했다. 헝가리 정부도 이에 발맞춰 온라인 결제 관련 각종 규제 완화를 시행했으며 은행에서는 증가한 온라인 결제에 대응하여 보안 강화 수단을 도입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이외 다른 특징으로는 중장년층 소비자파워가 높은 것이다. 여타 신흥국 대비 헝가리를 포함한 동유럽은 중장년 인구가 많으며 특히 헝가리는 중위연령이 40세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이들 집단의 교통, 의료, 통신, 주택 유지보수 등의 소비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지속적인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2022년 외국산 제품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 상품 인지도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으나 헝가리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삼성, LG, 현대 기아차와 같이 이미 서유럽까지 널리 알려진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력과 퀄리티 높은 우수한 제품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아울러 한국 영화 및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 및 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소비자들은 아직도 한국과 한국 상품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간혹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인지도 제고,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일례로 유로 2016 축구 대회 당시, 현대기아차는 부스를 설치하여 응원 공간을 제공했으며 헝가리인과 하나가 되어 대회에서 헝가리의 선전을 응원하였으며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최근 2차전지 기업의 투자 진출에 힘입어 급증한 한국의 대 헝가리 투자는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헝가리 정부 역시 이를 전략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만큼 헝가리 경제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한국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은 축제 또는 자체 CSR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지만 투자를 통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면서 기업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타이어,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한국 기업은 부다페스트 주요 시내에 대형 패널을 설치하여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등 소비자의 인식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처럼 헝가리인에게 한류의 영향력과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확대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정적인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에서 한국 상품 이미지를 제고 하기 위해서는 기존 한류의 영향을 받은 젊은 층에게는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외의 연령층에게는 여전히 한국 상품을 알리고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동시 전개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 문화 페스티벌 또는 한국 관련 이벤트를 통해 헝가리인에게 한국의 음식, 화장품, 나아가 전자 제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체험 기회를 흥미로운 방식으로 제공해 이들이 한국 제품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한국산 제품은 중국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편인 바, 가격 민감성이 높은 헝가리 소비자에게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상대방의 지위 중시

학벌과 지위를 중시하는 것이 헝가리의 관행이기 때문에 상대에 맞는 대우를 해야 호의를 살 수 있다. 명함에 명기된 'Dr. 호칭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회사의 기본적 사항은 제3자를 통해 숙지

첫 상담 때부터 바이어에게 수입규모, 연 매출액 등 회사 기밀에 관한 사항을 직설적으로 질문하면 불쾌함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상대 업체에 대한 정보는 현지 신용 조사 기관인 Credit reform(<http://www.creditreform.hu>)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볼 수도 있다.

3) 서신에는 담당자 이름을 꼭 밝힐 것

헝가리 업체는 메일이나 팩스로 교신할 때 담당자 이름이 없이 사장 명의로 배달되는 것은 대부분 보지 않고 스팸메일로 간주해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을 고려해 담당자 이름을 정확히 기재한 후 메일이나 팩스를 보내야 한다.

4) 계약은 신중히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경쟁사의 조건을 들며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따라서 계약이 완전히 성사되기까지는 방심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계약을 어겨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절차 진행 속도가 신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트너 선정에도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작은 인구 규모에서 비롯된 작은 시장으로 인해 일부 바이어는 때로 협상 과정에서 독점적 판매권을 요구하기도 한다. 바이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매출액, 레퍼런스, 네트워크 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하여 정보를 적극 요구하여 충분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

5)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라

다수의 헝가리 바이어들이 상담 후 한국 업체들과 연락이 끊기거나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정기적으로 현지시장을 방문해 적극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6) 긍정적으로 대답할 것

헝가리인은 외국인인 만나는 자리에서 '헝가리의 경제에 대한 견해' 등에 대해 의견을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해 초면일 때는 비판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보다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는 것이 좋다. 헝가리인은 비판에 대해 직접 듣는 것을 꺼리는 습성이 강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7) 적은 MOQ(최소 주문량) 고려 필요

헝가리는 1천만 이하의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시장이다. 아울러, 상거래상 MOQ는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으니 초기 거래 시 이 점을 유의하여 접근해야 한다.

8) 중국 상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라

일반적으로 현지 바이어들은 아시아산 제품이면 중국산을 많이 연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한국산이 중국산보다 품질 등에서 우월하다는 부분을 강조 및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가 선호 경향이 강해 중국산과의 단순 비교 시, 비싸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므로 제품의 사양, 성능, AS 등 중국산과 대비하여 우월한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9) 화상회의 등 언택트 관련 신중한 접근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된 관계로 많은 바이어들이 이어 적응하여 스카이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활용한 화상회의를 재빠르게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적응이 늦은 바이어도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첫 만남에 바로 화상회의를 추진하는 것 보다는 이메일 또는 유선을 활용하여 가볍게 인사한 뒤 어느 정도 친숙해진 이후에 화상회의를 통한 비즈니스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영어 활용이 가능하지만 영어로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바이어도 일부 존재하는 관계로 사전에 이에 대해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

헝가리인들과 비즈니스 관계로 만날 경우, 특히 첫 상담인 경우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헝가리인들의 상호 간의 신뢰와 품격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옷차림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첫 만남에서는 정장 차림이 요구되나, 이후 만남에서는 깔끔한 옷차림이면 괜찮다. 일반적으로 헝가리인들은 업무 중에 정장을 입지 않은 경우도 많으나, 중요한 미팅이나 파티 등에는 포멀한 정장을 입고 참석한다.

2) 인사

첫 대면 시 악수와 함께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인사를 하는 것이 좋다. 이후, 명함을 주고받으면 된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의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대방이 방문 시, 커피 등 음료를 권하는 것이 예의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시 커피나 차 등 음료를 구비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헤어질 때 역시 인사와 함께 악수로 미팅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

3) 선물

첫 비즈니스 미팅 시 선물은 주고받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물은 친분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 하는 것이 좋다. 선물에 대한 특별한 관행은 없으나 고가의 선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현지인들은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편이며, 저가의 초콜릿, 와인, 손수건, 꽃과 같이 소소한 품목 등이 보편적이다. 또한, 한국적이고 전통적인 선물을 좋아한다. 기업홍보물 중 USB나 전통 자개함 같은 품목은 인기가 좋다. 단, 칼, 핀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은 비즈니스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붉은색이나 별 모양은 공산주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색상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헝가리인이 마 종류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삼베 등의 재료로 만든 제품의 선물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또한, 날카로운 물건은 헝가리에서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므로 비즈니스 시 반드시 피해야 한다. 과거 한국을 방문했던 헝가리인에게 한국전통 비녀를 선물로 전달한 적이 있었으나 매우 당황스러워한 이력이 있다.

4) 약속

헝가리인들은 약속에 있어서 철저한 서구식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미리 약속하지 않고 방문하는 것은 매우 결례로 여긴다. 또한, 방문이 거절될 수도 있다. 헝가리인들은 부활절, 크리스마스나 여름에는 장기간 휴가를 떠나기도 하기 때문에 업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여름휴가 기간인 6~8월, 연말인 12월 중하순에 비즈니스 약속을 잡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헝가리인들과 미팅을 희망한다면 1주일에서 2주일 전에 미리 연락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비즈니스 관련 방문이 아닌 일상적인 약속의 경우 시간개념이 매우 느슨한 것이 헝가리인의 특징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약속시각에 매우 늦거나 일찍 도착하곤 한다. 헝가리인과 영어를 통해 직접 대화를 나누거나 비즈니스 관련 시간을 정할 때, 'Maybe'라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헝가리인은 이 단어가 애매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신과 만나기를 꺼린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헝가리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시간 약속을 정할 때에는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이 좋다.

5) 식사

비즈니스 미팅과 연계한 식사를 원할 경우, 미리 약속을 잡고 레스토랑을 예약하는 것이 좋다. 헝가리인들은 비즈니스 식사 자리도 업무로 여긴다. 따라서 식사 도중 전화가 울리더라도 헝가리 파트너사에 미리 정중하게 허락을 구한 후 받아야 한다. 또한, 식사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식사 시 와인, 맥주 등 음주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건배 시 에게시게드레(egeszsegedre) 라고 하는데, 이는 '너의 건강을 위하여' 라는 뜻이다. 하지만 헝가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와인이나 맥주를 마실 때 잔을 부딪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알고 있는 것이 좋다(비고 : 국제화가 되어 이에 대해 크게 신경쓰

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기타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기마 민족문화 및 공산주의 영향으로 여성의 발언권이 강한 모계 사회이므로 여성을 멸시하는 등의 발언은 삼가야 한다. 기마민족 특성이 강한 국가인 만큼 여성이 사회적으로 발언권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서구사회와는 다르게 계약서 또는 중요 문서를 작성할 때 어머니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 헝가리인들은 부부의 이혼 후에도 대체로 어머니 쪽에서 아이를 데려가기 때문에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서 공식 서류에 어머니 성함을 요구하기도 한다.

헝가리인은 외국인을 만날 시 자주 헝가리의 경제, 헝가리 사람들, 헝가리 난민 문제 등을 외국인들에게 가끔 질문하며 외국인들이 자기 민족의 특성이나 견해를 이해해줄 경우 매우 기뻐한다. 이에 초면일 경우에는 비판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보다 긍정적 측면을 주로 언급하는 것이 좋다. 헝가리인은 비판을 듣는 것에는 관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헝가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공무원에 대한 이의제기인데 경찰, 세관, 세무서, 공항직원 등 권위적인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필요 없는 이의 제기나 거친 행동은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심한 경우 구속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의제기가 필요할 시에는 간단한 구두 항의 후에 공식문서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은행에서 더딘 일 처리에 대해 심한 항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그 은행 이용이 매우 불편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 은행서류 등의 공식 서류 작성 시 반드시 파란색 펜을 사용해야 한다. 검정 펜을 활용하여 서명할 경우 사본과의 사실 여부 판별이 어렵다는 이유가 있으므로 유념하여 파란색 펜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1) Extreme Digital-eMAG(www.emag.hu)

○ 개요: eMAG는 2001년 루마니아에서 설립되었으며 2012년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변모와 함께 불가리아에 이를 최초로 런칭했다. 헝가리에는 2013년 진출했으며 현재 13개의 오프라인 매장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2019년 헝가리게 전자 상거래 플랫폼 Extreme Digital을 인수하면서 기업명이 Extreme Digital-eMAG로 바뀌었으며 현재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Extreme Digital과 eMAG는 지난 2019년 합병되었으며 '20년 매출액은 59,331백만 포린트(약 17백만 유로), 고용인원은 404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식료품, 도서, 전자기기, 가정주방용품, 운동기구, 캠핑 장비, 게임, 장난감, 미용제품, 생활용품, DIY정원용품, 공구류, 차량용품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헝가리 대표 전자 상거래 플랫폼인 만큼 제품 판매 외 다른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는 회원등록을 통해 역으로 eMAG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제품을 중고로 판매할 수 있으며 환불 또는 경미한 흠집이 있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제품 수령 방식도 타 플랫폼에 비해 다양하며 헝가리 전역에 설치된 eMAG easybox를 통해 배송비 부담 없이 수령할 수 있으며 매장 직접 수령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 'Offer of the day', 'Shopping Day'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여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여 시장 지위를 견고히 하고 있다.

2) Alza(www.alza.hu)

○ 개요: 1994년 체코에서 전자기기 및 컴퓨터 용품을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으로 현재는 전자기기뿐만 아니라 뷰티, 패션, 운동용품, 차량용품 등 9만여개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슬로바키아, 영국, 독일에 진출했으며 헝가리는 온라인 매장과 함께 체코를 제외하고 최초로 오프라인 쇼룸을 진출한 나라이다.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비해 폭 넓은 제품군, 프리미엄 판매 그리고 우수한 A/S과 보증 제도를 갖춘 것으로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2019년 기준 Alza는 순매출액 11.4억 유로를 달성했으며 750만 명의 고객 방문, 1,230만 회 주문, 3,700만 개의 제품 판매 등의 기록을 이뤄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Alza는 2016년 헝가리 시장에 진출했으며 '20년 기준 매출액은 22억 9천만 포린트(약 650만 유로), 고용인원은 45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전자기기, 가정주방용품, 운동기구, 캠핑 장비, 게임, 장난감, 미용제품, 생활용품, DIY정원용품, 공구류, 차량용품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Black Friday, 계절별 할인 행사 등 다양한 가격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여 제품 검색과 구매뿐만 아니라 현장 수령이 용이하도록 하는 사전 대기열 안내 시스템까지 도입했다. Alza를 통해 주문한 제품은 배송을 통해 수령 가능하며 이외 자체 운영 무인택배 보관함 AlzaBox 또는 쇼룸 현장 수령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3) Euronics(www.euronics.hu)

○ 개요: 1990년 네덜란드에서 전자기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약 37개국에서 1.1만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헝가리에는 전신인 1989년 설립된 Vorosko Kft.와 2001년 합병하면서 소유권은 헝가리 기업으로 유지하면서 Euronics의 명칭으로 영입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 온라인 매장을 설립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Euronics는 1989년 설립되었으며 '20년 기준 매출액 약 70,764백만 포린트(약 2억 유로), 고용인원은 988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전자기기 및 컴퓨터 용품, 가정주방용품, 생활용품, DIY정원용품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Black Friday, 계절별 할인 행사 등 다양한 가격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현재 헝가리에는 2011년 수도 부다페스트에 대형 매장 개점과 함께 헝가리 전역에 66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4) Mediamarkt(www.mediamarkt.hu)

○ 개요: 1979년 전자제품 위주의 생활 소비재 판매를 위해 독일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현재는

- 개요: 1979년 전자제품 위주의 생활 소비재 판매를 위해 독일에서 설립된 기업으로 현재는 유럽 내 14개국에서 영업하고 있다. 2012년 1월 독일을 시작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헝가리에는 32개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Mediamarkt은 1997년 헝가리에 진출했으며 '20년 기준 매출액 140,901백만 포린트(약 4억 유로), 고용인원은 1,48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전자기기 및 컴퓨터 용품, 가정주방용품, 생활용품, DIY정원용품, 공구류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할인 쿠폰 발급 등 상시 프로모션을 비롯해 다른 플랫폼과 유사하게 Black Friday 행사를 진행하여 소비자를 유치하고 있다. 또한, 제품 사용에 이상 없는 하자가 있거나 환불된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Outlet형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전자기기 및 가전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5) 220volt(www.220volt.hu)

- 개요: 헝가리에서 설립된 생활소비재 전반 취급 전자 상거래 플랫폼으로 온라인 매장과 함께 오프라인 매장을 총 3개 운영하고 있다.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20volt은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20년 기준 매출액 27,736백만 포린트(약 79백만 유로), 고용인원은 80명이다.
- 주요 판매 품목: 전자기기, 가정용품, 건강 및 생활용품, DIY정원용품, 장난감 등 생활소비재를 주로 판매하고 있다.
- 특징: 생활소비재 전반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지만 카메라 및 렌즈, 비디오 카메라 등 카메라와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는 무료 배송을 제공하는 등 카메라 등 영상촬영기기에 초점을 두고 관련 제품군 판매에 집중하고 있다.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삼성전자

1990년에 설립된 삼성전자 헝가리 공장은 1989년 초 영국 윈야드 소재 중대형 컬러 TV 생산 시설을 이전한 것으로 현재 헝가리 야스페니서루(Jaszfenyszaru)에 위치하고 있다. 헝가리에서 생산되는 TV는 대부분 주변 유럽지역으로 공급되며 네덜란드에 위치한 물류법인(ELS)으로 보내진 후, 서유럽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헝가리 시장 내에서도 2000년 국내 TV 시장점유율 1위, 2012년에 점유율 50%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면서, 2007년 제2공장의 증축, 2014년에는 3공장 증축에 완료하여 생산 효율성 증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0년 제3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약 2,3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직간접적으로는 6,800여 명의 지역 내 생계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서구에 비해 저렴한 헝가리의 우수 기술 인력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2021년 Randstad Employer Brand Research에 의하면 Industrial Manufacturing 분야에서 Lego와 Audi를 제치고 헝가리 내 첫 번째로 매력적인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법인 인근 지역에서 삼성 IT기기 활용을 지원하는 삼성 스마트스쿨, 현지 우수 대학인 ELTE 및 부다페스트 공대와 연계 직원 채용, Liska Jozsef Catholic High School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삼성 워크샵 설립 등을 통해 현지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2)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7년 부다페스트 남쪽 라칼마쉬(Racalmas) 헝가리 공장 가동 이래 2008년 5백만 개 규모의 1차 증설, 2010년 700만 개 2차 증설을 거쳐, 총 1,200만 개 생산능력을 보유, 약 2천여 명의 현지인을 채용하고 있다. 2013년 5월 30일 한국타이어는 3차 증설을 결정해 유럽시장에서 거점을 확대키로 하였다. 3차 증설은 2013년 7월 착공을 시작해 2015년 5월에 준공이 완료되었다.

2013년 한국타이어는 헝가리 투자 외국계 기업 중 고용창출 효과 2위 기업으로 성공적 기업으로 평가받은 바 있으며, 2012년에 헝가리 정부로부터 십자공로 훈장을 수여 받았다. 한국타이어도 2011년 매출액 기준 63위를 달성해 100대 기업에 신규 진입하였으며, 2012년 47위, 2013년에는 43위로 경총 뛰어올랐다. 한국타이어는 2012년 12월 헝가리 정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헝가리 내 비교적 오래된 진출 업력으로 인해 한국타이어는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중인 Hankook Tire's Tire Donation Program을 통해 한국타이어는 8년간 18,000개 이상의 타이어를 공공서비스 분야와 사회적 약자에게 기부했으며 2020년에는 National Ambulance Service, Hungarian Red Cross 등에 타이어를 적시 기부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헝가리 정부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3) LG전자

지난 1992년 판매법인으로 헝가리에 진출한 LG전자는 현재 135명의 직원을 바탕으로 동유럽 판매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LG전자는 2004년 DVD 리코더가 헝가리 전문정보지 '컴퓨터 파노라마'에서 최고 점수를 획득해 시장점유율 25%를 달성, 2006년 디지털TV 부문에서 최고 판매를 기록한 바 있다. 2013년 곡면 OLED TV와 ULTRA HD TV를 선보이며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사랑을 받고 있으며, 헝가리 대표 축구팀을 후원해 헝가리에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2016년에는 헝가리 부다 왕궁에서 OLED TV를 통해 유명 회화작품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행사를 해, 문화와 헝가리 왕궁을 사랑하는 헝가리인들에게 큰 지지를 얻었다.

4) KDB 유럽

KDB 은행은 1989년 대우은행으로 헝가리와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MHB-DAEWOO 은행을 한국산업은행이 2002년 인수하며 이름을 KDB 헝가리로 변경했다. 헝가리에 4개 지점을 가지고 있으며 슬로바키아에도 파견 사무소 1개를 가지고 있다. 고용인원은 약 170명에 달한다. KDB는 헝가리 기업뿐 아니라 헝가리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주요 고객으로 설정하고 있다. 2013년 상호명을 KDB Europe으로 변경하며 그 영역을 유럽 전역으로 넓히려는 목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등에 신규 지점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5) 삼양

'삼양EP헝가리주식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큰 유럽시장에서 Global Supplier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2월 헝가리 야스베레 니시에 설립되었다. 삼양EP헝가리는 삼양사가 100% 지분 투자해 설립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컴파운드 회사로 연 생산규모는 1만 톤이다. 현재 삼양EP헝가리에서 생산된 제품은 삼성전자 슬로바키아, 헝가리, LG전자 폴란드의 LCD TV 하우징 및 패널용 EP소재로 공급되고 있으며 현지 헝가리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판로 개척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삼양바이오팜의 투자계획이 2020년 7월 발표되었으며 유럽 내 최초 제조시설을 헝가리에 설립함으로써 합성 의류 봉합사가 생산되어 유럽 시장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6) 현대일렉트릭

우리 진출기업 중 유일하게 RnD 센터를 헝가리에서 운영 중이다. 현재 약 50여 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중전기 분야에 대한 R&D를 진행 중이다. 특히, 서유럽권 글로벌 기업의 은퇴 인력 및 헝가리 RnD 인력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효율성이 높은 RnD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 중이다. 헝가리기술센터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마이크로그리드 등에 필수적인 '전력변환' 원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친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속에서 현대일렉트릭의 기술은 에너지 효율성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관계로 다가올 시대에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 삼성SDI

2016년 9월 헝가리 공식 투자진출을 발표했으며 2017년 5월 공장을 준공했다. 준공식에는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까지 참여하며 헝가리 정부의 큰 관심을 받았다. 헝가리 정부는 차세대 자동차 산업 관련 투자로 Bosch의 자동주행 연구센터와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제조공장 프로젝트를 대표 예로 삼고 있다. 삼성SDI는 공장 완성 후 전기차 배터리를 연간 5만 대 분량을 양산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2공장 증설을 위해 투자를 단행하여 진행 중이다. 2020년 2월에 개최된 '2019년 헝가리 투자자 상 시상식'에서는 올해의 비즈니스 확대 기업(Business Expansion of the Year)분야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8) 롯데첨단소재

2010년 삼성 SDI 화학 부문인 삼성케미컬로 헝가리에 처음 설립되었다. 국내에서 삼성SDI의 화학 부문이 롯데 첨단소재로 인수·합병되면서 헝가리에서도 롯데 첨단소재로 다시 등록되게 됐다. 헝가리에서 100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설립 당시 2만 4,000만 톤의 생산 공장에 불과하던 규모는 현재는 12만 톤까지 증가했다.

9) SK 이노베이션

2018년 3월, 2020년 개시를 목표로 전기차(EV) 배터리 제조 시설이 착공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 제1공장에서 배터리가 생산되고 있다. 또한, 추가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현재 제2공장을 건설 중이며 앞서 현지 제조 시설 투자에 나선 LG화학, 삼성SDI와 함께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2월 개최된 '2019 헝가리 투자자상 시상식'에서는 올해의 일자리 창출 기업(Company of the Year for Job Creation)분야를 수상하였으며 이는 2019년 2월 개최된 '2018 헝가리 투자자상 시상식'에서 기술집약적 투자 분야(Technology Intensive Investment) 투자자상을 수상한 것에 이어서 연말에 수상한 쾌거를 달성했다.

2021년 1월, SK 이노베이션은 헝가리 역사상 최대 금액의 그린필드 투자를 발표했다. 현재 코마롬에 위치한 제 1,2공장과 함께 이반차에 제 3공장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약 22.9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집행될 예정이다. 완공되어 양산에 돌입할 경우 약 30GWh 규모의 배터리가 생산될 예정이며 이는 연간 43만대의 전기차를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이다. 또한, 2,500여 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어 헝가리 내 SK이노베이션의 기업 이미지를 더욱 견고히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 추가 진출 사례

동화일렉트로라이트(전해액), 일진머티리얼즈(동박), 상신EDP(메탈캔, 2차), 롯데알미늄(알루미늄박) 등 2차 전지 소재 및 부품 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관련 기업의 진출 또는 추가 투자가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991년 4월 25일부터 헝가리와 한국 간 비자면제협정의 발효로 90일 이내 상호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나 취업 등의 이유로 헝가리에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한다면 필히 장기비자(거주허가, Residence Permit)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의 종류에는 취업비자, 유학비자, 가족 비자가 있으며, 2013년 7월 8일부로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비자 유효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유효하며, 연장되지 않으며 유효 기간 만료 전 출국해야 한다. 공항경유 비자는 부다페스트 국제공항을 통과할 때 필요하나 대한민국 시민은 면제이다. 비자 발급 시간은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보통 30일 정도를 예상해야 하며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평균 60일이 소요된다.

[코로나19 관련 헝가리 입국 서류]

2022년 4월부터 헝가리는 출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이에, 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PCR 검사 결과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공통 구비서류]

- 신청 비자의 유효기간 만료 후 최소 3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 여권 인적 사항 면의 사본
- 3개월 이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2매
- 비자신청서
- 의료보험증명서
- (동반가족의 경우) 개인별 상기 공통서류 모두 구비

[비자별 의무 구비서류]

1) 취업비자(노동허가증)_법인장의 경우

- 노동허가서
- 소득활동 종류 증명서
- 법인등록증
- 헝가리 거주지 증명(등기부 등본을 첨부한 주택임대계약서)
-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증빙 서류
- 소득에 대한 이사진의 결정서, 증명서 등
- 헝가리 법인잔고 증명서
- (헝가리 고용인의 경우) 고용인의 고용계약서
- (신규 설립 법인) 사업계획서
- (기존 운영 법인) 전년도 재무제표 및 법인의 체납 이력서

2) 취업비자(노동허가증)_법인장 외의 경우

- 노동허가서
- 고용계약서
- 헝가리 거주지 증명(등기부 등본을 첨부한 주택임대계약서)
- 헝가리 또는 한국은행 잔고 증명서(영문본)
- (선택) 학위증명서 * 해당 포지션에 외국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확인을 위한 증빙으로 요청할 수도 있음

3) 유학비자

- 입학허가서(+ 학비 납입 증명서 등)
- 헝가리 거주지 증명
- 체류비 조달에 관한 확인 서류

4) 워킹홀리데이

- 범죄경력증명서(한글)
- 주민등록증
- 계좌잔고증명서(영문본)
- 체류 전 기간에 걸친 여행자보험 증명서

* 비고 : 신청일 기준 신청자의 만 나이 18세~30세 사이어야 하며 입국 후 최대 12개월까지 체류가 가능, 단 가족 동반 불가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휴대품 면세 한도

출입국 절차는 매우 간단하고 편리한 편이다. 일반적으로 여행객 등에 대해 일일이 휴대품 검사를 하지는 않으나, 세관원이 임의로 선택해 세관검사를 하므로 세일즈 출장자들은 Sample 등에 대해서 인보이스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통관해야 출국 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입국 시 17세 이상의 경우 담배 200개비, 와인 4리터, 양주 1리터, 맥주 16리터까지 세관에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으며 그 외 일반상품의 휴대 반입은 430유로까지(공항 이용 시) 허용된다. 면세 제품을 EU 국가에서 구입하였다면 마지막 출국하는 EU 국가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헝가리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오스트리아를 경유해 출국하는 경우, 오스트리아 공항에서 세금 환급 가능). 이 경우 제품은 사용 전이어야 하고, 제품가격이 VAT 포함 175유로를 초과, EU 국가로 입국한 후 90일 이내 출국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세관에 제품 구입 시 발행된 원본 인보이스와 세금환급 양식 2부(세관 보관 1부 포함), 여권, 탑승권, 구입한 물품을 제시하면 된다.

최근 면세 허용 용량을 초과하는 담배류 등의 반입으로 헝가리 입국 시 공항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관계로 사전 주의가 요구된다.

2) 외국환신고

1만 유로 이상의 현금, 여행자수표, 유가증권 등을 휴대 반출/반입하는 경우 헝가리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헝가리 한국대사관

전화번호	+36 1 462 3080
주소	Budapest, Andrassy ut 109, 1062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hu-ko/index.do

○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전화번호	+36 1 550 0240
주소	1023 Budapest, Frankel Le&ocute; út 30-34. Hungary
홈페이지	http://hungary.korean-culture.org/ko

○ KDB Bank Europe

전화번호	+36 1 374 9700
주소	1054, Budapest, Bajcsy-Zsilinszky út 42-46
홈페이지	http://www.kdbbank.eu
비고	info@kdbbank.eu

<자료원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정부포탈

홈페이지	https://regi.ugyfelkapu.magyarorszag.hu/
------	---

○ 공정거래위원회

전화번호	+36 1 472 8900
주소	1054 Budapest, Alkotmány u. 5
홈페이지	http://www.gvh.hu/en/

○ 외교부

전화번호	+36 1 458 1000
주소	1027 Budapest, Bem rakpart 47.
홈페이지	https://kormany.hu/kulgazdasagi-es-kulugyminiszterium
비고	konz@mfa.gov.hu

○ 세무청

전화번호	+36 1 428 5100
주소	1054 Budapest, Széchenyi u. 2.
홈페이지	http://nav.gov.hu

○ 투자청

전화번호	+36 1 872 6520
주소	H-1055 Budapest, Honvéd u. 20.
홈페이지	https://hipa.hu

<자료원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434.73HUF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밀가루	1kg	1.010
2	식품	계란	10개	1.510
3	식품	설탕	1kg	1.160
4	식품	돼지고기(다릿살)	1kg	3.520
5	음료	우유	1L	0.950
6	음료	생수	1.5L	2.900
7	음료	코카콜라	1.75L	0.730
8	의료	병원진료비(내과초진)	의료보험 미적용	84.090
9	교통	교통권	1회권	0.810
10	교통	교통권	1달, 일반	21.850
11	교통	택시요금	km	1.610
12	전기, 통신	전기 요금	10kWh	18.290
13	전기, 통신	인터넷 사용료(월)	60mbps	23.000
14	주택	아파트 임차료(월)	방 1개, 시내	713.090
15	주택	아파트 관리비(월)	85m2 기준	50.280
16	숙박	호텔(4성급)	1박 정상요금(더블)	95.590
17	숙박	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더블)	67.190
18	임금	최저임금(월)	2022년 기준	728.740
19	학비	4년제 국립대학교 등록금	ELTE대학교, '22년 상반기 전체 학과 평균 기준	1796.900
20	기타	헤어컷	남자 1명	6.190

<자료원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헝가리 통계청('22.8.), 헝가리 중앙은행('22.9.29.)>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헝가리의 공식 통화는 헝가리 포린트(HUF)다. 유로를 받아들이는 장소는 많지만, 가맹점이 사용하는 환율은 보통의 교환 사무소(change) 또는 은행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현저히 낮다. HUF 동전의 단위는 5, 10, 20, 50, 100 및 200이며 지폐는 500, 1,000, 2,000, 5,000, 10,000 및 20,000단위이다.

환전방법

헝가리에 입국하고 나서 헝가리 포린트(Forint)로 환전하는 것이 한국에 있는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낫다. 헝가리 은행은 대부분의 은행보다 더 나은 환율로 교환해주기 때문이다. 포린트로 환전하는 것은 은행, 시내의 환전소 및 여행사에서 가능하다.

모든 환전소는 자체적으로 환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미리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이 교환 장소에 잘 보이게 표시된 곳에서 바꾸는 것이 좋다. 호텔에서 환전하는 것은 적어도 10% 비싸므로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다. 모바일뱅킹의 보급으로 현지 은행 계좌가 있다면 포린트를 가져가지 않아도 되며 측석에서 계좌이체를 하여 편리하게 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이용

현지의 신용카드 사용은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여서 대부분의 장소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전자결제 시스템의 확산으로 카드를 대부분의 매장에서 활용 가능하지만 관광지 등에서는 여전히 소액결제는 현금으로 거래하는 장소들이 있으므로 항상 일정 현금을 보유하고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교통

교통상황

수도 부다페스트에서는 메트로(지하철), 버스, 트램, 트롤리 버스 4종류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메트로는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있으며 1호선은 유럽대륙 최초의 지하철로 유명하다. 버스의 경우 총 200개 노선이 있어 부다페스트 시내에서 움직일 때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된다. 트램과 버스를 혼합한 형태인 트롤리 버스는 현재 부다페스트에 37개가 운영 중이다. 트롤리 버스는 주로 큰 버스들의 접근이 힘든 골목길로 운행한다. 이 밖에도 교외전차인 히브(HÉV), 산악열차인 포거쉬케레퀴(Fogaskerek)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다페스트 교통국(BKK, <https://www.bkk.hu>, * 한국에서는 열리지 않을 수 있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부다페스트의 대중교통은 늦은 저녁 시간을 제외하고는 배차간격이 매우 촘촘하므로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헝가리의 모든 교통수단(지하철, 트램, 버스, 트롤리버스) 티켓은 통일되어 있어 1일권에서부터 3달권까지 구입이 가능하며, 장기로 끊을 수록 비용은 저렴하다. 2022년 기준 티켓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 티켓은 우체국, 지하철 매표소, 자동판매기에서 구입할 수 있다. 버스 또는 트램에 탑승하여 구입할 수도 있으나 자동판매기보다 비용이 비싸다.

○ 대중교통 티켓 이용료

- 1회 티켓(환승불가): 350포린트, 버스 또는 트램에 탑승하여 구입 시 450포린트(2022.6월 기준)
- 1회 티켓(환승 가능): 530포린트
- 1일 사용권: 1,650포린트
- 3일 사용권: 4,150포린트

- 7일 사용권: 4,950포인트
- 15일 사용권 : 6,300 포인트
- 1개월 사용권: 9,500포인트
- 3개월 사용권(실제 100일): 28,500포인트

지하철을 이용할 때에는 입구에 있는 BKK직원에게 소지하고 있는 교통권을 보여주고 들어가야 한다. 멈춰서 자세히 보여줄 필요는 없고, 이동하면서 가지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

주의할 점은 1회권 티켓의 경우 탑승 시 티켓을 반드시 개찰기에 찍어야 한다는 점과 한 번 타고 내리면 유효성이 끝난다는 점이다. 만일 환승을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환승 티켓을 구매하도록 한다. BKK 안장을 찬 검표요원이 자주 불심검문을 실시하여 무임 승차자에게 벌금 1만 6천 포린트를 징수하는데 현장에서 납부할 경우 50% 금액인 8,000포린트만 납부하면 된다.

1개월 이상의 정기권을 쓸 경우 정기권에 ID 번호를 입력하여 타인이 쓸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 정기권 이용 시에는 ID 번호를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이나 거주증을 함께 소지하고 있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헝가리 학교의 학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한 달 교통권을 3,450포인트에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권 구매시 학생증 고유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검문 시 학생증을 요구할 수 있으니 상시 챙겨다녀야 한다. 학생증이 없으면 벌금을 부과하니 유의해야 한다.

버스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티켓은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상세한 요금은 부다페스트 교통국(<https://www.bkk.hu>, * 한국에서는 열리지 않을 수 있음)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 교통수단별 요금뿐 아니라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적정 교통편을 찾아주는 길 안내 기능도 있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택시

헝가리에서 길거리 택시를 잡을 경우 가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길거리 택시를 잡을 경우, 한국과는 반대로 콜택시보다 비싸다. 따라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콜택시를 이용 시에는 내 위치랑 성명, 가고자 하는 위치를 사전에 알려주면 교환원이 대략적인 대기시간을 알려준다. 약 5~10분 후에 택시가 도착하면 내 이름을 알려주어 예약 여부를 서로 확인 후 이용하면 된다.

2014년 1월부터 부다페스트 시 택시비는 모두 동일하게 바뀌었다. 택시 요금은 기본요금이 450포인트이며 이후 km당 280포인트씩 추가된다. 팁은 미터기에 나타난 금액에 약 10%를 더해 지불하면 되나 지불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가끔 미터기를 할증 미터기로 틀어놓거나 고의로 길을 돌아서 가는 양심 불량한 택시기사들이 있으니 핸드폰으로 GPS 확인하며 가면 사기를 당할 확률이 비교적 낮다.

한편 일반 택시보다 값이 저렴한 우버가 2014년 헝가리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택시기사들의 반발과 헝가리 정부의 관련 법규 강화로 2016년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는 Bolt, Taxify 가 헝가리 내에서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가격은 택시요금과 동일하나 사기를 당할 확률이 없으며 휴대폰 앱으로 간편하게 호출하고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하철

헝가리의 지하철(Metro)은 유럽대륙 최초로 1896년에 건설되어 현재 부다페스트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헝가리 지하철은 노란색의 M1, 적색의 M2, 파란색의 M3, 그리고 최근에 개통한 M4까지 총 4개의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노선인 1호선은 지하철의 소음이 매우 심하고 문이 닫히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나, 탑승 시 백 년 전 유럽으로 시간 이동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매우 색다르다.

1호선은 헝가리의 상젤리제라고 불리는 언드라시(Andrasy) 거리를 따라 달리며, 오페라 극장, 테러박물관, 영웅광장, 시민공원, 세체니

온천과 같이 헝가리 주요 명소들을 지나친다. 2호선은 부다페스트 동서를 가로지르며, 부다페스트 남부역(Deli Palyaudvar)과 부다 성에 오를 수 있는 셸 칼만 광장, 동부역(Keleti Palyaudvar)을 연결한다. 3호선의 경우, 2022년 노후한 시설을 전부 신식으로 교체하였으며 서부역(Nyugati Palyaudvar)을 지나 공항과 시내 구간을 연결한다.

가장 오래된 1호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리노베이션 논의가 진행됐으나 도입 지하철 차량에 대한 오작동 문제, 프로젝트 수주와 관련한 비리 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면서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가장 현대화된 4호선에 대해서도 노선 확장 등을 위해 2018년 GDP의 2.4%에 해당하는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다. 이는 유럽연합과의 공동 펀드 프로젝트로서 위반한 경우 유럽연합으로부터 약 700억 포린트(한화 3,000억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트램

트램의 경우 종류가 매우 많고 다양하지만, 다뉴브 강(독일어 도나우 강, 헝가리어 두나 강)을 따라 달리는 2번 트램이 유명하다. 또한, 4~6번 트램이 부다와 페스트 지역을 연결하며 가장 많이 이용된다. 학교 방학기간인 7~8월경에는 일부 구간에 대해 매년 정비기간을 가지기도 한다.

다. 통신

핸드폰

근래에는 이동전화 사용이 보편화돼 이동전화만으로도 큰 불편이 없어, 이동전화만 신청하는 소비자들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통신업체에 가입 후 정기 사용료(후불)를 지불하거나 선불 충전카드(USIM)를 사서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선불 충전카드의 경우 가입이 필요 없고, 상점에서 USIM 카드 구입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후불방식보다는 다소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헝가리의 휴대폰 서비스 제공업체로는 크게 T-Mobile, Telenor, Vodafone 등이 있으며 시내 곳곳에 지점들이 위치해 있으므로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원하는 서비스(전화, 인터넷, TV)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여권 또는 체류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같은 통신사의 같은 상품이라도 요구하는 금액이 다르니 사전에 알아보고 가는 것도 추천한다. 주로 시내 중심지나 쇼핑센터 내에 있는 통신지점들이 비싸게 판매하는 편이다.

2022년 6월 기준, 부다페스트 중심지에는 T-Mobile과 Vodafone 등에서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외지역에 대해서는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헝가리는 EU회원국 중 5G투자를 선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터넷(와이파이)

헝가리에서 인터넷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를 원하는 동네에 통신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부다페스트 도심 안에서도 통신업체에 따라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지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격과 조건은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인터넷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통신업체들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최소 계약 기간은 1년이나, 세부 조건은 매달 달라진다. 도중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통신업체를 직접 방문에 최신 상품들과 패키지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헝가리 인터넷 서비스는 대부분 T-Home 혹은 UPC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한편, 한국과는 달리 헝가리는 인터넷 신청을 하면 보통 신청 후 1~2주 후이나 설치되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라. 관광명소

○ 부다 왕궁(Buda Castle)

도시명	부다페스트
주소	Budapest, Szent Gyogy ter 2, 1014
운영시간	부다 왕궁의 시간 제한은 없다. 하지만 왕궁 주변의 레스토랑과 펍들은 23시쯤에 문을 닫는다.
명소소개	13세기 몽골의 침입을 받아 에스테르곰에서 도망쳐 나온 벨라 4세 왕이 자신의 새로운 거처로 부다에 고딕 양식의 성을 세운 것이 왕궁의 시작이다. 그러나 16세기에 터키와의 전투에서 왕궁은 파괴됐으며 17세기에 바로크 양식의 새로운 궁전이 세워졌다. 현재 부다 왕궁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1950년대에 새로이 완성된 것이다. 왕궁 내부는 현재 미술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부다페스트의 근사한 야경을 보여주는 중심 건물이다.
비고	전화: +36-1-458-3000 홈페이지: http://www.budavar.hu/budai-var

○ 마차시 성당(Matthias Church)

도시명	부다페스트
주소	Budapest, Szentharomsag ter 2, 1014
운영시간	월~금: 9~17시 토: 9~12시 일: 13~17시
명소소개	마차시 성당은 역대 왕들의 대관식이 거행됐던 곳이다. 1255~1269년 빌러 4세의 지휘하에 고딕양식으로 건축된 이 성당은 1470년 마차시 왕의 명령으로 높이 88m의 첨탑이 증축되면서 붙여졌다. 이 교회의 특징은 화려한 모자이크 모양의 지붕과 세밀하게 장식된 석탑이며, 내부에는 프레스코 벽화, 역대 사제들이 입었던 의상, 십자가, 그리고 빌러 4세와 왕비의 석관이 안치돼 있다. 성당 내부에는 마차시왕의 머리카락이 보존돼 있다.
비고	전화: +36-1- 489-0716 홈페이지: https://www.matyas-templom.hu/

○ 국회의사당(Hungarian Parliament Building)

도시명	부다페스트
주소	Budapest, Kossuth Lajos ter 1-3, 1055
운영시간	월~금: 8시~18시 토~일: 8시~16시
명소소개	1884년부터 1902년까지 매일 1,000여 명의 일꾼이 투입돼 건축된 국회의사당은 영국 국회의사당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다. 365개의 뾰족한 첨탑은 1년 365일을 상징하고, 이는 365일 동안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하겠다는 헝가리인들의 정서가 담겨있다. 길이 268m, 폭 118m, 총 691개 방으로 구성돼 있으며 돛의 높이는 대성당의 높이와 같은 96m로 이루어져 있다. 이 건물은 초현대식 건물로 실내온도가 20도를 유지하게끔 만들어졌으며, 헝가리 출신의 미술가 문카치 미하이의 천정화와 순금 50kg으로 장식된 건물 전체가 보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헝가리 국장 문양에서 많이 보았을 헝가리 초대 왕, 성 이슈트반의 왕관이 국회의사당에 전시되어있다. 3월 15일 헝가리 혁명 기념일에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비고	전화: +36-1 441-4000 홈페이지: http://www.parlament.hu/

○ 성 이슈트반 대성당(St. Stephens Basilica)

도시명	부다페스트
주소	Budapest, Szent Istvan ter 1, 1051
운영시간	월~토: 9~19시
명소소개	기독교를 헝가리에 국교로 인정한 이슈트반 초대 국왕을 기리기 위해 세운 부다페스트 최대의 성당이다. 이 성당 탑의 높이인 96m는 헝가리 건국 896년의 96을 의미하며, 부다페스트에서 국회의사당과 함께 가장 높다. 도나우 강변의 모든 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위해 국회의사당과 대성당의 높이인 96m 이하로만 지어져야 한다. 성당 안 주제단 뒤편에는 성 이슈트반의 오른손이 봉헌된 신성한 오른손 예배당이 있고, 낮 시간에는 전망대를 개방하고 있다. 일요일마다 미사를 드리고 있고, 직접 들어가 그 광경을 볼 수 있다. 입장료는 따로 받지 않으나, 성당 입구에 기부금형식으로 200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게 돼 있다.
비고	전화: +36-1-311-0839

○ 오페라 하우스(Hungarian State Opera)

도시명	부다페스트
주소	Budapest, Andrassy ut 22, 1061
운영시간	공연 일정에 따라 상이함.
명소소개	네오르네상스 양식으로 지어진 국립오페라하우스는 미클로쉬 이비가 설계했으며, 19세기 헝가리 건축물 가운데 주요 건축물이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당시 프란츠 요제프 오스트리아 황제가 건설 자금을 제공했으며,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 하우스 중 하나로 꼽힌다. 2022년 리노베이션을 마무리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비고	전화: +36-1-814-7100 홈페이지: http://www.opera.hu/

<자료원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마. 식당

- 현지식당

○ 군델(Gundel)

도시명	부다페스트
전화번호	+36 1 889 8111
주소	Budapest, Gundel K´roly út 4, 1146
가격	30~100달러
영업시간	12~24시
소개	영화 글루미 선데이(Gloomy Sunday)에 소개돼 외국인에게 가장 유명한 부다페스트 소재 레스토랑이다. 식사하는 동안 헝가리 화가들의 벽화와 집시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으로 기재, 헝가리 전통요리 중에는 구야쉬(Gulyás) 수프가 우리나라의 육개장과 비슷해 우리 입맛에 맞다고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체코나 다른 주변국의 먹을 수 있는 구야쉬와는 매콤한 맛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 필수
----	--

○ 사즈이베쉬(Szazseves)

도시명	부다페스트
전화번호	+36 1 230 0329
주소	Budapest, Piarista u. 2, 1052
가격	15~20달러
영업시간	12~24시
소개	100년 전통을 가진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오래된 레스토랑이다.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 필수

○ 버드로자(Vadrozsa)

도시명	부다페스트
전화번호	+36 1 326 5809
주소	Pentelei Molnar utca 15
가격	15~20달러
영업시간	월~토: 12~23시 일: 12~16시
소개	부다의 중심에 위치한 레스토랑이다.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 필수

○ 버고이바르(Bagolyvar)

도시명	부다페스트
전화번호	+36 1 889 8111
주소	Budapest, Gundel Küroly út 4, 1146
가격	12~18달러
영업시간	12~22시
소개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Bagolyvar는 헝가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요일 예배 끝나고 찾아가는 식당이 모태이다.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 필수
----	--

○ 비그 켈마르(Vig Kalmar)

도시명	부다페스트
전화번호	+36 1 306 4019
주소	Budapest, F út 78a, 1151
가격	15~20달러
영업시간	일~월: 12~17시 화~토: 12~22시
소개	영화 예술인들의 연회(Banquet of the Artist)의 촬영장소로 많은 헝가리인들이 여전히 많이 찾고 있다.
비고	가격대는 1인 기준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 필수

<자료원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 한국식당

○ 아리랑(Arirang etterem)

도시명	부다페스트
전화번호	+36-30-634-1525
주소	Budapest, Istenhegyi út 25, 1125
가격	평균 HUF 3,500
영업시간	화~일: 12~22시
휴무일	월요일
비고	가격대는 1인 식사류 기준, 상세 내용은 식당에 직접 확인 필요하다.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 필수

○ 한국관(Hankukkwan etterem)

도시명	부다페스트
전화번호	+36-30-371-4621
주소	1143 Budapest, Ilka utca 22
가격	평균 HUF 3,500
영업시간	월~토: 16 ~ 22시
휴무일	일요일

비고	가격대는 1인 식사류 기준, 상세 내용은 식당에 직접 확인 필요하다.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 필수
----	--

◦ 장금이()

도시명	부다페스트
전화번호	+36-30-607-8839
주소	1064 Budapest, Izabella u. 83, 1064
가격	평균 HUF 3,500
영업시간	월~토: 11~20시
휴무일	일요일
소개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한식당
비고	가격대는 1인 식사류 기준, 상세 내용은 식당에 직접 확인 필요하다.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 필수

◦ 비빔밥 팔라레스토랑(Bibimbap Pala Bistro)

도시명	부다페스트
전화번호	+36-1-613-1947
주소	1073 Budapest, Erzsebet krt. 39
가격	평균 HUF 3,500
영업시간	월~일 : 12~20시 30부
비고	가격대는 1인 식사류 기준, 상세 내용은 식당에 직접 확인 필요하다.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 필수

◦ 진갈비 식당(Jin Galbi Restaurant)

도시명	부다페스트
전화번호	+36-30-011-7300
주소	Budapest, Hold u. 15, 1054
가격	평균 HUF 3,500
영업시간	오전 11시~ 오후 2시 30분 / 오후 5시~ 오후 9시 30분
휴무일	일요일
비고	가격대는 1인 식사류 기준, 상세 내용은 식당에 직접 확인 필요하다.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 필수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켐핀스키 호텔 코르비누스 부다페스트(Kempinski Hotel Corvinus Budapest)

도시명	부다페스트
주소	H-1051 Budapest Erzsebet ter 7-8
전화번호	+36 1 429 3777
홈페이지	http://www.kempinski.com/budapest
숙박료	Superior Room : 240EUR Deluxe Room : 260EUR
소개	Elizabeth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이 호텔은 1992년에 문을 열었으며, 이후 리모델링을 통해 현대식 모습으로 변모한 5성급 호텔로, 총 365개의 객실이 있으며 객실마다 대리석으로 치장된 욕실이 있다. 대규모 회의를 위한 행사장 또한 구비하고 있으며, 편의시설로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등이 있다. 도보 5~10분이면 도나우 강과 오페라 하우스, 박물관 등을 볼 수 있고 한국의 명동이라 할 수 있는 바치거리가 있다.
비고	숙박료 예약 일정별 상이(홈페이지 참조)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여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 필수

○ 인터콘티넨탈 부다페스트(InterContinental Budapest)

도시명	부다페스트
주소	H-1052 Budapest Apaczai Csere Janos Utca 12-14
전화번호	+36 1 327 6333
홈페이지	https://www.ihg.com/intercontinental/hotels/us/en/budapest/budhb/hoteldetail?cm_mmc=GoogleMaps-_-IC-_-HU-_-BUDHB
숙박료	King Superior Room : 180EUR King Bed Junior Suite : 235EUR
소개	Danube 강가와 왕궁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다페스트의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호텔로서 1981년에 문을 열었으며, 총 398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행사장을 갖추고 있다. 호텔 로비에 위치한 카페는 부다페스트 야경을 보기 좋은 장소이며, 위치에 비해 커피나 맥주 가격이 저렴한 편이므로 한 번쯤 둘러보는 것을 추천한다.
비고	숙박료 예약 일정별 상이(홈페이지 참조)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여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 필수

○ 소피텔 부다페스트(Sofitel Budapest)

도시명	부다페스트
주소	H-1051 Szechenyi Istvan ter 2
전화번호	+36 1 266 1234
홈페이지	https://all.accor.com/hotel/3229/index.ko.shtml
숙박료	성수기: Single room 124 유로, Twin room 129유로 비수기: Single room 94 유로, Twin room 109유로
소개	Danube 강과 왕궁이 내려다보이는 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호텔 내에 피트니스 센터, 실내 수영장, 2개의 레스토랑, 하나의 바/라운지가 있으며, 첨단 장치가 설치된 9개의 미팅룸과 연회장이 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 바로 옆에 위치해 호텔 밖 다뉴브 강가를 걸으며 야경을 보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비고	숙박료 예약 일정별 상이(홈페이지 참조)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여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 필수

<자료원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 게스트하우스

o 부다민박(Budapension)

도시명	부다페스트
주소	Budapest, Andr´ssy út 6, 1061
전화번호	+36-70-570-9419
홈페이지	http://www.budapension.com/
숙박료	2인실 기준, 비수기 80EUR/성수기 90EUR
소개	게스트하우스가 위치한 안드라시 거리는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화려한 거리로, 오페라하우스와 유명 브랜드 매장,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사관이 모여있는 유서 깊은 거리다. 200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부다민박 건물도 이에 포함된다. 한식 조식이 포함되어 있다.
비고	카카오톡 ID: budak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여부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연락하여 확인 필수

<자료원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사. 치안

치안상황

1) 여행경보 단계, 경보 등 주의사항

우리나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www.0404.go.kr)에 따르면, 헝가리로의 여행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별도의 여행경보가 발령되지 않았으나 2011년 경찰을 사칭한 사기단에 의해 우리 국민이 여권과 현금 일부를 뺏긴 사례, 2012년 여성을 노린 강도 사건이 있었던 만큼 신변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간혹 가정집을 터는 도둑들이 있으므로 외출 시에는 반드시 창문 및 현관문 단속을 철저히 한다.

헝가리는 대체로 안전하나 EU집행위의 난민 수용 결정에 대해 찬반 국민투표를 며칠 앞두고 경찰에 대한 폭탄 테러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

었다. 또한, 유럽 전역으로 테러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헝가리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폭파되지 않은 폭탄들이 남아있다가 종종 건설현장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현지 언론이나 현지인들을 통해 정부를 수습하여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17년도에 들어서 헝가리 정부의 반 유럽연합 노선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과 중부유럽대학 폐교 논란(Lex CEU) 등 정치적 이슈로 인한 시위가 많으며, 도로 통제와 일부 대중교통 노선의 운행 중단 등에 유의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헝가리 내 아시아인 혐오에 대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평소 주의가 요구된다.

2) 위험지역

헝가리는 중부유럽의 주요 관광지로 치안이 안정된 편이다. 폭력 관련 범죄비중은 최근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소매치기, 자전거 도난, 차량부품 도난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부다페스트의 주요 지하철역 및 버스 안, 관광지 주변에는 소매치기가 많아 소매치기 주의 스티커도 부착되어 있다. 가방은 백팩보다는 솔더백이나 토트백을 사용하여 몸 앞쪽에 놓는 것이 좋다.

또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극우파(스킨헤드족들이 많음)들의 범죄가 가끔 발생하므로 대규모 시위가 열리는 날 영웅광장, 국회의사당 주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블러허 루이저, 켈레티 역, 뉴거티 역 주변에는 노숙자 및 관광객을 노리는 소매치기 등이 간혹 있으므로 해당 지역에서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겠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복 경찰들이 주요 지하철 역사 안과 관광지 주변에 배치되어있지만, 되려 사복 경찰을 사칭한 지능 범죄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발생한 테러 관련하여 아직까지 헝가리 내 관련 움직임은 없으나 타겟층에 동양인이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높은 만큼 상시 주의해야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시, 우선 구급차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 경찰 긴급전화로 연락해 교통 순찰차를 호출, 조서를 꾸미도록 한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충돌사고 및 접촉사고 시에는 도로 옆 안전한 곳에 비켜 세운 후 상대방 차의 색깔, 번호, 운전자 이름, 신분증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주위에 있는 증인을 확보 후 가까운 교통경찰 당국에 신고한다.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107로 교통순찰차를 불러 사고 경위 조서를 꾸민 후 정비공장에 견인하도록 한다. 민사책임이 따르나,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처리한다.

사고를 대비해 항상 운전 시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차량정비 등록증 그리고 Accident Statement(BALESETI BEJELENT)을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단골로 이용하는 정비공장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상대방 차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2~3곳 정도의 견적서를 받아둘 필요가 있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 단수 여권 발급이 가능하다. 대기 민원에 따라 발급시간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당일 발급되며, 경찰청 신원조회 미회보자의 경우 근무일 기준 최대 2~3일 소요된다. 단수 여권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분실신고서, 긴급여권발급사유서, 여권 사진 2매
- 수수료: 긴급여권 15,900포인트(2022년 기준, 포인트 현금 납부만 가능)
여행증명서 7,000포인트

3) 응급 전화번호

- 경찰 : 107
- 통합신고(엠블런스, 경찰, 화재 등) : 112
- 응급센터 및 긴급의료기관 : 104
- 외국인 여행자 사고 전담 부서 : +36-1-438-8080
- 24시간 응급치료: +36-1-200-0100(페스트 지역), 220-6636(부다 지역)
- 자동차고장 및 견인: +36-1-580-5134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헝가리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집을 구하는 일이다. 특히 관광비자로 체류 한도 기간인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거주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거주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거지 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집을 우선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 주요 주택 중개소 및 사이트

○ 중개소: 헝가리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구하는 방법이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는 외국인을 상대로 집을 알선해주는 상당수의 부동산 중개소들이 영업 중이며, 중개소 직원 대부분이 젊고 영어가 가능해 많은 외국인이 이용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동산 중개소로는 '유로센터(Eurocenter)' 및 '엣홈(at Home)' 등이 있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체들은 1년 이하 단기 거주자에게는 임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동산을 통한 단기 주거계약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름이나 겨울 방학 기간에 1달 단기 투숙을 구하거나, 5~6개월 기간을 임차하길 원한다면 학생 전용 플랫폼(쉐어하우스)이나 스튜디오(원룸)를 찾으면 된다. 해당 매물은 보통 페이스북 'Flat for erasmus'와 같은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중개인이 영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페이스북을 통해 거래할 시에, 계약금 사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덕 업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유로센터: 홈페이지: www.eurocenter.hu/ TEL: +36-20-919-0005
- 엣홈: 홈페이지: budapest.athome-network.com/ TEL: +36-20-262-7864
- FLOTT: 홈페이지: www.flottinvest.hu/ TEL: +36-1-780-5318
- Alberlet: 홈페이지: www.alberlet.hu

○ 중개 사이트: 최근에는 부동산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Facebook 등 SNS를 활용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 SNS는 대부분 외국인을 상대로 거래되기 때문에 영어를 구사하는 집주인을 만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지인들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허위매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현지인들이 집을 구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이트 (<https://ingatlan.com/budapest/elado+lakas>)를 이용하면 더 저렴한 가격의 집을 찾을 수 있으나, 사이트 자체도 영어판이 없고 영어를 구사하는 집주인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사이트들을 이용하면 짧은 기간 거주공간을 찾거나 직접거래에 따른 수수료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언어가 자유롭지 않은 해외에서 사기를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지인과 함께 사전에 충분히 알아본 후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입지 고려

헝가리에서의 집은 아파트와 FLAT 등 두 종류로 구분된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는 도심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원이 딸린 FLAT보다 임차료가 저렴한 편이다. 부다페스트는 다뉴브 강을 중심으로 좌측의 언덕을 끼고 있는 부다 지역과 우측의 평지인 페스트 지역으로 구성돼 있다. 부다페스트에서 주재원들이 가족 단위로 주로 거주하는 지역은 부다에 위치한 2구역과 12구역으로 주로 FLAT 형식의 집들이 대부분이며 'AMERICAN SCHOOL' 및 'BRITISH SCHOOL' 등 외국인 교육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밀집해 있다.

집 임차료는 월 800유로에서 5,000유로까지 천차만별이며 1,500~2,000유로 정도의 수준이면 외국인 거주지역에 보통 마음에 드는 수준의 집들을 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관광객의 수요가 대폭 감소하여 임차료가 이전 대비 15~20% 감소했다고 알려져 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2021년 경제 반등이 예상되는 만큼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구매 관련해서 서유럽 국가에서 투자 목적으로 매매하는 경우도 많으며 중국인의 수요도 제법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 중심지의 경우,

헝가리인보다는 외국인이 소유주일 경우가 높다고 할 만큼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수요가 높으며 이로 인해 가격이 지속 상승하기도 했다. 그리고 신규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2019년 말 완료됨에 따라 이는 집값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페스트 지역 등 시내 쪽에 위치한 아파트를 구할 경우에는 700~900유로 수준의 집도 구할 수 있으나 주차장이 없고 가구들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소음이 심해 임차료가 넉넉하지 않은 유학생들이 주로 임차하고 있다.

페스트에서 5구역, 6구역, 7구역 등은 100년 이상 된 건물이 많으며 상당수 건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역에 해당한다. 해당 지역에는 외교관 및 UN 기구 직원 등에서부터 ERASMUS라고 불리는 유럽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헝가리에 거주 중인 학생들까지 상당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페스트 지역은 100년 이상 된 지역이라 지하 주차장이 갖춰진 건물은 매우 찾기가 어렵고 건물 한 동을 아예 주차장으로 개조한 시설들이 시내 곳곳에 있다.

또한, 곰도독이 간혹 있기 때문에 안전 보안시설이 잘 갖춰진 곳으로 집을 구하는 것이 좋다. 주재원으로 헝가리에 거주할 경우, 본사 발령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련 조항들을 계약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집주인과 미리 협의해둘 필요가 있다.

3) 보증금 및 집세 내기

부동산을 통해 집을 구할 때는 중개소를 통해 집을 방문할 것을 미리 예약해야 하며, 계약이 성사될 시 보통 임차료의 한 달 치를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나, 중개소에 따라 임대인이 100% 지불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50%씩 각각 나눠 지불하는 경우가 있으니 집을 구하기 전 중개소에 꼭 이 점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에는 집 계약 시 임대인들이 임차료 한 달 치 혹은 두 달 치 상당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의할 점은 계약 해지 시 임대인들이 집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도 있으므로 집의 하자 부분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주인에게 명확히 이메일 등으로 공지해두는 것이 좋다.

집세는 달마다 내는 것이 통상적이며 현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계좌이체를 통해 내는 것이 기록을 남길 수 있어 더 안전하다.

전화

부다페스트 시내의 경우에는 최대한 1개월 정도면 전화 설치가 가능하며, 그 밖의 지역은 아직도 6개월 이상 기다려야 전화 설치가 가능하다. 전화 신청은 UPC, Magyar Telekom 등 서비스 업체에 전화 한 통으로 신청할 수 있다.

Magyar Telekom의 기본 패키지 기준 한 달 요금은 1,900포인트 정도이며, 2년 약정 시 1,520포인트로 조금 더 저렴하다. 한편 최근 휴대폰 보급 확대에 따라 가정용 전화를 사용하는 가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전압/플러그

전기규격은 230V, 50Hz이다. 2004년 5월 EU 가입에 따라 헝가리가 독자적으로 적용하는 공업규격은 없어졌으며 EU의 기준을 따르게 되었다. 플러그는 라운드가 두 개인 유로플러그(europlug)를 사용한다. 한국에서 가져온 일반 전자제품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전열기구나 모터를 돌리는 제품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작동할 경우 전자제품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한국에서 전자제품의 주파수는 60Hz이기 때문에 50/60Hz 겸용이 아니라면 현지에서 못 쓰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식수

헝가리의 수도물은 마셔도 될 만큼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으나 최근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의 보고서는 헝가리의 수도물에 대한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지인들도 물을 사서 마시거나 정화해서 마시는 추세가 늘고 있으며, Brita와 같은 가정용 물 필터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2014년 헝가리 관련법 개정에 따라 차량 구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인을 선정해야 하며, 보증인은 해당 차량에 대한 등록자로 헝가리 영구주소등록증 소지자 혹은 헝가리 소재 법인의 경우에 한정된다.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범칙금 및 보험료 등은 보증인에게 부과되게 된다.

헝가리에서 차량 구매를 계획할 경우에는 주차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봐야 한다. 헝가리에는 한국식으로 주차 건물이나 주차 공간이 많지 않다. 특히 페스트 지역 중심부에서는 항상 차를 주차하기가 어렵다. 그래도 시내 곳곳에 건물 한 채를 주차장을 개조한 형태의 유료 주차장들이 운영 중이며 한 달 임차료가 약 15~20만 원 정도에 이용할 수 있다.

길거리에 차를 주차할 경우에는 반드시 티켓을 끊거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 서비스를 접수해야 한다. 비용은 장소마다 다르며, 시내 중심부일수록 비싸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는 평일 오후 8시 이후 주차 무료이지만 시내 중심부에서는 간혹 야간 시간에도 유료인 경우가 있으니 이를 주의해야 한다. 간혹 길거리에 주차된 외국인 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량 절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외진 곳에 주차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2016년부터 부다페스트시의회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녹색 자동차 번호판을 주기로 하고 전기차 사용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시내 내에 어디서든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법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기차 자동차 도입 활성화를 위해 구매에 따른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차량가격

헝가리에서 운행되는 대부분의 차량은 수동(Manual)차량이다. 자동(Auto) 차량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주문 시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신형 오토 차량을 구입하려면 시간 여유를 두고 미리 주문하는 편이 좋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중고차량 매매는 전문 중계 사이트인 OOOYO(<https://www.ooyo.com/>) 또는 Hasznaltauto(www.hasznaltauto.hu)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며,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인근국 중개소를 통해 구입도 가능하다. 중고차량의 경우 주변 유럽국에서 들어온 차량도 많이 판매되나, 품질이 나쁜 경우가 많으므로 차량 검사를 진행하고 꼼꼼히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최근 중고차량의 경우 미터기 조작 등 외국인을 상대로 성능이 낮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현재 헝가리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연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바 중고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더욱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수다.

차량 구입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차량 부가세와 등록세이다. 2012년부터 모든 공산품의 부가세가 27%로 올랐기 때문에 고가의 소비재인 차량구입에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량 등록세는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다르며, 최저 150유로에서 최고 16만 유로까지 부과된다.

운전면허 취득

운전 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만 지참한다면 운전엔 문제가 없으나,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르거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헝가리 운전면허증은 별도의 시험 없이 국내 1, 2종 면허를 헝가리 B 카테고리 면허로 교환할 수 있다. 면허 교환은 헝가리 체류증(거주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가능하다. 운전면허 교환은 부다페스트 중심가 동사무소(Budapest F?varos Kozponti Okmanyiroda)에서만 가능하며, 인터넷 예약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한다. 교환 신청 시 국내 운전면허는 제시 후 돌려받게 되며, 헝가리 운전면허 발급 완료 후(2~4주 소요) 국내운전면허를 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운전 면허 교환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운전면허 번역본(3개월 이내의 대사관 번역본 혹은 OFFI 공증 번역본), 헝가리 체류증, 주소지 등록(Lakcim Kartya), 국내 면허증, 여권, 면허 교환 수수료 6,200포린트(2021년 9월 기준)이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헝가리에는 다수의 시중은행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규모가 큰 OTP, ErsteBank, K&H, Unicredit, Budapest Bank 등이 주요 은행이다. 우리 진출기업인 KDB Europe은 중대형 은행에 속하며 고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

계좌 개설방법

헝가리에서 계좌를 만들 때에는 여권과 현지 전화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외화계좌 및 현지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은행 담당자가 지정되어 담당자와 수년간 거래하게 되고, 계좌 오픈 시 직불카드를 함께 발급해주나, 신용카드는 발급이 사실상 어렵다. 모든 은행은 온라인 거래 및 전화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초기 비밀번호는 우편으로 배달되며 본인 선택할 수는 없는 구조이다.

외국인이 외화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은행마다 기준이 다르며, 최소한 2천 달러 이상을 적립해야 개설이 가능한 은행도 있다. 헝가리에서 은행을 이용할 경우 한국보다 수수료가 매우 비싼 편이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유로화 계좌는 수수료가 포린트화 계좌보다 상당히 비싸다. 유로 계좌이체는 건당 수수료가 15유로에서 20유로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헝가리는 계좌 유지비가 따로 부과되므로 참고하는 것이 좋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o The American Intl School of Budapest(AISB)

도시명	부다페스트
커리큘럼	특별활동으로 운동과 음악(합창/밴드), 컴퓨터, 무용, 미술 등 다양하다. 63개국의 다양한 학생들이 함께 하는 환경이다.
학비	6~8학년까지 22,000달러 9~10학년까지 23,300달러 11~12학년까지 23,500달러
홈페이지	https://www.aisb.hu
비고	미국계

o The British Intl School Budapest(BISB)

도시명	부다페스트
커리큘럼	만 16세까지 영국국제시스템 (National Curriculum for England)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언어 보충 수업이 구성되어 있다.
학비	5,967,000~6,668,000 포린트(단계별 상이)
홈페이지	https://www.nordangliaeducation.com/our-schools/budapest
비고	영국계

◦ International School of Budapest

도시명	부다페스트
커리큘럼	캠브리지국제커리큘럼 (Cambridge International curriculum)과 헝가리커리큘럼을 병합한 교육 커리큘럼을 채택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isb.hu

<자료원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 현지학교

◦ AUSTRIA SCHULNETZWERK

도시명	부다페스트
커리큘럼	헝가리의 이웃나라인 오스트리아의 교육방식과 헝가리 교육방식을 통합한 커리큘럼을 따른다.
홈페이지	http://europaschule.hu/hu/

◦ Fazekas Mihaly Elementary and High School (Budapest)

도시명	부다페스트
커리큘럼	수학 심화, 사회과학, 이공계 등 특화 커리큘럼 보유
홈페이지	https://www.fazekas.hu/

◦ Eotvos Jozsef Secondary School

도시명	부다페스트
홈페이지	http://www.ejg.hu/

<자료원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마. 병원

◦ Páterfy Sándor Utcai Hospital-Clinic and Trauma Centre

도시명	부다페스트
주소	Budapest, Páterfy Sándor u. 8-20, 1076
전화번호	+36 1 461-47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페스트 지역에 위치함 *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문의 필수

◦ Szent Imre Hospital

도시명	부다페스트
주소	Budapest, Tóthárok út 12-16, 1115
전화번호	+36 1 464 860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부다 지역에 위치함 *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문의 필수

◦ FirstMed

도시명	부다페스트
주소	Budapest, Hattyú u. 14, 1015
전화번호	+36 1 224 9090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부다 지역에 위치하며 이러한 사설병원은 현지 국가보험이 없는 여행객들이나 방문자들에게 유용하다.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여행자보험이나 사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문의 필수

◦ Rózsákert Medical Center

도시명	부다페스트
주소	Budapest, Görgey Áron u. 74-78, 1026
전화번호	+36 1 392 0505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부다 지역에 위치하며 이러한 사설병원은 현지 국가보험이 없는 여행객들이나 방문자들에게 유용하다.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여행자보험이나 사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문의 필수

○ Dr Rose Medical Center

도시명	부다페스트
주소	Budapest, Széchenyi István tér 7, 1051
전화번호	+36 1 377 6737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페스트 지역에 위치하며 이러한 사설병원은 현지 국가보험이 없는 여행객들이나 방문자들에게 유용하다.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여행자보험이나 사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 문의 필수

<자료원 : Source : Expat Arrivals(<https://www.expattarrivals.com/europe/hungary/budapest/healthcare-budapest>)>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Westend

도시명	부다페스트
주소	Budapest, Váci út 1-3, 1062
홈페이지	http://www.westend.hu
비고	부다페스트의 메인 터미널인 Western Railway Station (Nyugati Pályaudvar) 옆에 위치하고 있다. 다른 큰 쇼핑몰들이 생기기 전에 한때 중부유럽에서 가장 큰 쇼핑몰로 유명했었다.

○ Arena Mall

도시명	부다페스트
주소	Budapest, Kerepesi út 9, 1087
홈페이지	http://www.arenamall.hu
비고	페스트 쪽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 부다페스트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다.

○ MOM Park

도시명	부다페스트
주소	Budapest, Alkotás u. 53, 1123
홈페이지	http://www.mompark.hu
비고	부다 쪽에 위치한 쇼핑몰로 무역관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

<자료원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 식품점

○ 중앙시장(Great Market Hall)

도시명	부다페스트
주소	Budapest, Váacute;mháacute;z krt. 1-3, 1093
취급 식료품	헝가리 대표 시장으로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을 판매한다.

○ Spar

도시명	부다페스트
취급 식료품	과일, 빵 등 식료품부터 생활용품, 주방용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또한, 오스트리아에서 가져오는 물품들이 많은 편이다. 헝가리에 있는 마트 브랜드 중에서는 비싸게 판매하는 편이다.
비고	현재 부다페스트에만 198개의 지점이 영업 중이며, 헝가리 유통업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슈퍼마켓이다.

○ Aldi

도시명	부다페스트
취급 식료품	식료품부터 생활용품, 주방용품까지 대부분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비고	Aldi는 독일계 슈퍼마켓으로 현재 헝가리 내 132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 Lidl

도시명	부다페스트
취급 식료품	식료품, 생활용품, 주방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며, 다른 마트들은 소매점인 반면 Lidl은 도매 판매가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자료원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 기타 편의시설

○ Budapest Highland Golf Club

도시명	부다페스트
주소	Budapest, Dozsa Gyorgy ut 99-103, 1224
홈페이지	https://www.highlandgolf.hu/
소개	부다페스트에 소재한 골프장
비고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헝가리에서 무난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이다.

○ 세체니 온천(szechenyi furd)

도시명	부다페스트
주소	Budapest, Allatkerti krt. 9-11, 1146
홈페이지	http://www.szechenyifurdo.hu/
소개	세체니 온천(szechenyi furd)은 헝가리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으로 온천과 더불어 스파, 실내 외 수영장도 발달해 있어 여가를 즐기기에 충분하다.
비고	헝가리는 온천 문화가 매우 발달했으며 이외 루다스 온천, 갈레르트 온천 등도 유명하다.

<자료원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혁명기념일	2023-03-15	2023-03-15
성 금요일	2023-04-07	2023-04-07
부활절 월요일	2023-04-10	2023-04-10
노동절	2023-05-01	2023-05-01
크리스마스 둘째날	2023-12-26	2023-12-26
성 스테파노 축일	2023-08-20	2023-08-20
공화국의 날	2023-10-23	2023-10-23
모든 성인의 날	2023-11-01	2023-11-01
크리스마스	2023-12-25	2023-12-25
오순절	2023-05-29	2023-05-29

<자료원 : KOTRA 부다페스트 무역관>

10. KOTRA 무역관 안내

○ 부다페스트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H-1123 Budapest, Alkotás u. 50. Alkotás Point B1, 3F(Alkotás 빌딩 B동 3층)
- 전화번호: +36-1-799-5400
- 이메일: info@koreatrade.hu
- 참고사항: Google Map에서 KOTRA 검색 시, 간혹 잘못된 주소로 안내될 수 있으므로 무역관 방문을 계획할 경우 주소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역관 방문 시, 건물 인포데스크에서 출입증을 발급받아 B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오면 되며 출입증이 없을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가하다.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에서 무역관으로 출발 시
 - 버스(1회 환승 필요): 시내로 가는 공항버스가 있으며 100E 버스는 공항버스 티켓을 900포린트(약 2.5유로)에 구매해야 하며 200E 버스는 일반티켓으로 탑승 가능하며 350 포린트(약 1유로)에 구매할 수 있다. 100E 버스 기준으로 탑승 후 시내 중심 Deak Ferenc ter M에서 하차한 뒤 8E, 110, 112 버스로 환승한 다음 BAH-csomopont 에서 내리면 된다. 이후 도보로 약 5분 정도 걸으시면 도착할 수 있다.
 - 택시: 당일 교통상황에 따라 요금 및 소요시간이 변동될 수 있지만 통상 9,000포린트(약 25유로), 40분 내외 소요된다.
- 건물 도착 후
 - 로비 인포데스크에서 방문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출입증을 제공해준다. 무역관의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추천한다.

*코로나19로 일부 대중교통은 운행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하다.(예, 공항 버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